

금주일언 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
하고, 분노하면 도를 알
지 못하니, 능히 분노를 울리지는 자는
복과 기쁨이 항상 곁에 따른다.
(법구경·분노품 328절)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2770-2037)

제 115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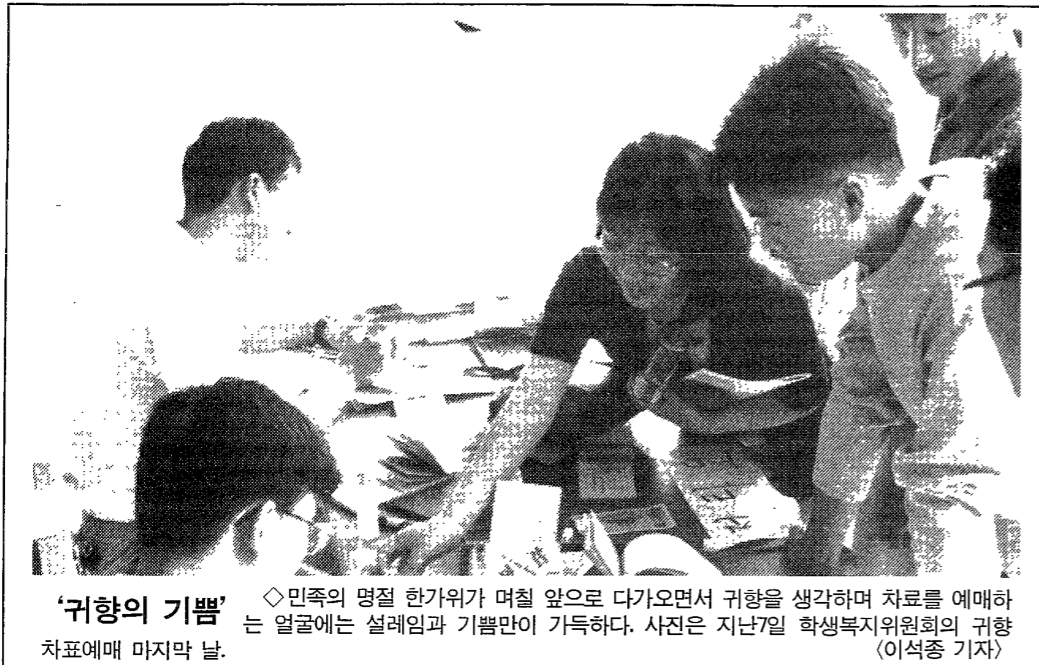
(주간)

1964. 1. 1 동국대학교 창간
1955. 10. 13 제3호 창간호(가) 창간호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9월 14일 (수요일)

1



‘귀향의 기쁨’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귀향을 생각하며 차를 예약하는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쁨만이 가득하다. 사진은 지난7일 학생복지위원회의 귀향차표예매 마지막 날.
(이석중 기자)

대학과 지역민의 대화합의 장 제1회 중구 예술제 10월 8일 개막

중구예술제가 오는 10월8일부터 16일까지 본교를 위시한 충무로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초 본교 예술대 학생회(회장=이종필·미술4)와 교수들의 논의로부터 시작된 중구예술제는 여러 교수, 대학원 학생회 및 학내교직원 노동조합까지 논의가 되어 모임을 가져왔고 서울예술전문대학과 여러 영화사 및 인쇄노동단체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사전행사로 치러진 주부미술대학에는 1백20여명이 등록해 지방화시대를 앞둔 지역대학의 위상을 대변한다는 행사 기획의도를 충족시켰다.
구체적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8일=만해광장에서 '개막의 날' 행사. 본교와 서울예전 등의 동아리, 현대 음악 관악 5중주단 및 춤패, 여러 유명인사, 연예인들이 출연한다.
△10일=명동의 날행사가 열리며 본교 미술학과 행위예술팀, 전통무예 시범단과 클래식 기타 연주회, 한양대 및 서울대 음악가 공연한다.
△12일=‘한국영화 대제전’이 대한극장 또는 중구구민회관(예정)에서 열리며 영화인만나기와 한국영화의 발전에 관한 토론회도 함께 한다.
△13일=중구구민회관에서 ‘중구구민토론의 날’이란 제목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한 중구지역대학, 시민단체, 학계 대표토론회가 열린다.
△15일=인쇄인의 날행사와 함

께 중구예술제의 절정인 ‘동국인 가족음악회’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동국인 가족음악회는 뉴서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박인수교수, 안치환씨 등 여러 가수와 본교출신 연예인들이 출연하며 행사 수익은 1백주년 기념사업회에 기증한다.
교수, 직원, 학생 예매기간은 오는 19일에서 23일까지이고 동문예매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다.
△16일=‘매막의 날’행사로 장충단공원에서 중구시민학생 노래자랑이 있다.
이밖에 본교 미술학과 설치미술전, 경실련 알뜰바자회, 북한 명주 및 지방 특산물 판매 등이 중구에 축제기간중 장충단공원에서 열리며 서울예전의 뮤지컬과 본교 연극영화학과가 기획한 ‘달라진 저승’을 공연한다.
중구예술제 중앙기획실장 이종욱(대학원 정의와 석사과정)은 “상충간의 행사가 아닌 과를 중심으로 한 하층부터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를 받고있다.
지난해 명찰순례를 다녀온 후, 금요일에 출발하여 교수·직원의 참여가 저조했고 사전답사부족으로 일차환승 등 여러 가수와 본교출신 연예인들이 출연하며 행사 수익은 1백주년 기념사업회에 기증한다.
교수, 직원, 학생 예매기간은 오는 19일에서 23일까지이고 동문예매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이다.
△16일=‘매막의 날’행사로 장충단공원에서 중구시민학생 노래자랑이 있다.
이밖에 본교 미술학과 설치미술전, 경실련 알뜰바자회, 북한 명주 및 지방 특산물 판매 등이 중구에 축제기간중 장충단공원에서 열리며 서울예전의 뮤지컬과 본교 연극영화학과가 기획한 ‘달라진 저승’을 공연한다.
중구예술제 중앙기획실장 이종욱(대학원 정의와 석사과정)은 “상충간의 행사가 아닌 과를 중심으로 한 하층부터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구 동문 등단 한국문학 시부본

‘한국문학’ 제31회 신인작가공모 시부본에서 조용구(인문대 국문 94졸) 동문이 ‘구절리에서’ 등 시4편으로 당선됐다. (관련기사 2. 8면)
재학시절 ‘동국문화회’ ‘시선’등으로 활동했던 조용구는 “처음 당선 소식을 들었을때 무척 당황스러웠다”며 “우리 삶의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는데 힘쓸것이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교수동정

▲채택수(선화)=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일본 경도 불교대학에서 ‘백제 불교의 계승사상이 일본 초기 불교의 계승형성에 끼친 영향’에 관해 연구
▲최현각(선화)=오는 26일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가 주관하는 학술 논문발표회에 참석, ‘한국 불교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

총장직선제 사수 결의대회 총운위 합의로 새국면

총장선출에 관한 학내 제주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총장직선제 사수투쟁을 총학생회 차원에서 진행시키기로 하는 등 학생회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7일 도서관 앞에서 ‘직선제 사수의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결의대회’가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회 5대방침과 재단답변에 대한 규탄연설을 한 야간강과 총학생회장 박유찬(영문3)군은 학생처방침은 ‘신학원안정화대책’이라 단언하고 “야간강좌에 4개과를 신설한 것은 재단전입금 5%영입을 무마하기 위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의 직선제폐단 발언 배경을 설명한 동국문화회장 유병문(불교3)군은 “간선제로 총장제임을 꿈꾸는 보수연합을 분쇄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수간의 파벌을 조성하는 것은 재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회장 최수일(3)군은 교수와 학생을 축추하는 발언을 통해 “교수제임용권을 재단이 쥐고있는 현실에서 총장직선제를 사수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자율권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기회·보수주의에 쫓겨 교수회 상층이 자주적인 모습으로 혁신할때”라고 주장했다.

‘총장직선제 사수와 자주적총장선출을 위한 학생대책위(위원장=안진우·국교4)’의 발족에 대해서 경상대 학생회장 최정준(영제4)군은

“학생회 강화와 자주적 학내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중적 조직이 있어야 하므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학생대책위원장 안진우군은 “중구예술제와 각단위 학술제를 통해 힘을 모아내서 총장선출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적 총장 선출 서명운동 불교대 학생회

불교대 학생회(회장=최정현·인철4)는 학원의 자주권 수호와 총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서명운동을 한다.
불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정현 학생회장은 “총장 인를 추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총장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민주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적 총장선출에 관한 서한을 불교대 교수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재단총장직 반대 △교수들에 의한 총장 직선 선출 및 학내 주체의 참여 보장 △삼삼학교법 개정과 재단의 효율적 개혁.

보리수 맹귀우목(盲龜遇木)

넓은 바다속에 눈먼 거북이가 있다. 이 거북은 물에 올라갈 뜻을 품고 백년에 한번씩 바다 위로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자기 외의 다른 무엇인가를 만나지 않고서는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한 뜻을 가진 거북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구멍 뚫린 널판지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약속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출렁대는 물결에 따라 만경창파를 떠돌아 다니므로 거북이가 바다위에 떠올랐을 때 마침 그와 만나게 되거나 백천만 겁의 시공적 교차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어려운 일이다.
만일 거북이가 떠올랐을 때 널판지가 다른 바다위를 표류하고 있다면 거북이는 별 수 없이 다시 바다 밑으로 내려가 다시 백년을 기다려다가 다음 때를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널판지가 거북이의 코밑에 와 있다면 치더라도 거북이가 떠오르기 전에는 역시 만나지 못하는 허사가 되고 만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생명 중에 서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널판지를 만나 물에 올라오는 것에 비유한 말이 잡아함경에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

이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헤아리기 어려운 부침을 거둬두고 무한한 점을 옮겨 다니다가 눈먼 거북이와 구멍 뚫린 널판지가 만나서 인연회합이라고 한다. 이 어렵 속의 한 인연을 만나 태어난 것이 생명이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듣고 보면 정녕 우리의 생명이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도 이 세상에 오기 어려운 생명이 얼마 안 가서 죽어가야 하므로, 천만 겁의 한 인연으로 생명이 마치 불타처럼 반짝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부귀공명을 드날리는 이도 역시 생사의 테두리 내에 있는 한계 속의 존재가 아닌가.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길을 원효스님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죽기 괴롭거나 남지 말고, 남지 또한 어려우니 죽지도 말아라(曩生爭其死世苦, 莫死爭其生世難).
일월성신이 하늘에 떠서 온 세상을 비추고 그 빛은 장애없이 없이 후를 감싸듯이, 우리의 삶 또한 세간에 산다해도 허공 같이 자유로이 진흙탕 속에서도 물결에 올라오는 것에 비유한 말이 살고 지고고 인생이다.
崔玄覺

◇경주 총학생회장 사퇴사건 평가

상층 중심 학생회운영 문제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검증 필요

통일교 원리연구회 주최 ‘한국대학생 지도자 밤기 연수’ 참가와 관련한 이번 총학생회 사퇴사건은 총학생회 내부의 자적성 및 도덕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총학생회의 전반적인 사업작업을 드러냄으로써 그 의미가 깊다.
1학기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2학기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방학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계농활을 제쳐둔 채 진행된 총학생회 핵심간부들의 2회에 걸친 해외연수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제11대 총학생회가 내걸었던 경주자치권 확보, 1재단 2총장제 등 여러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총학생회 간부들의 해외연수는 현 총학생회가 얼마만큼 대중에 기반한 학생회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사건이다.
한편 상층위주의 힘으로 이번 총학생회를 해결했던 중앙운영위원회와 비대중적인 학생회운영 또한 오류점으로 지적된다.
결과적으로 총학 간부 2인의 사퇴로 일단락된 이번 총학생회 사태는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무분별한 행동, 총학생회 방종활동 미흡, 비대중적인 학생회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총학생회는 부총학생회장 박현규(철4)군이 대리총학생회장 직을, 기획부장에 안재영(회계 3)군 등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향후 총장선거를 총학대안 사안을 앞둔 현재 일반학우들로부터 멀어진 학생회의 위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와 이번 사태로 야기된 총학생회 전반적 사업활동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부)

88의 성상 우리가 이어갑니다



제36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 모집부서 및 인원
취재기자 ○명
사진기자 ○명
만화기자 ○명
- 응시자격
본교 1학년에 재학중인 모든 분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집단면접
2차 개별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입사원서(본사 소정양식) 1부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94년 9월 1일(목)~9월 27일(화) 오후5시까지
- 원서교부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옥내지하1층, 본사 충무부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 본사 편집부
- 전형일
1차 전형
서울캠퍼스 94년 9월 27일 오후6시
학생회관 옥내 지하1층 본사 회의실
경주캠퍼스 94년 9월 27일 오후6시
학생회관 2층 본사 회의실
2차 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공고
※기자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장학금 지급

동대신문사

대학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대신문사에서선 에리한 필봉으로 민족동국 88년의 역사를 이어나갈 인재를 찾습니다.

조대시

구절리에서

조용구 (인문대 국문 94졸)

낮은 기압골이 머물다 갔다
 등성등성 흰 눈이 물러나는 높은 등고선의 마을
 기관차의 속력으로 달리고 싶었다.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은 뒤에 남겨두고
 일류업류한 폐광촌의 마을로 들어가고 싶었다
 깨진 유리창과 파편으로 흔들리는 바람소리
 노숙산 아래 앙상한 소나무 한 그루 비틀어 놓고
 달아나는 삼설소리
 정신, 별어곡 지나 침침한 저녁엔
 빈 가게와 부서진 식탁을 지키는 몇명의 사내들과
 술을 마시고 싶었다. 달은
 어느새 긴장한 어깨를 넘보며
 두려움은 새벽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판자집이나 슬레이트집 속에서 흘러나오는
 우렁쟁이같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쟁쟁한 웃음, 먼 동이 머오르면
 하루 꽃집으로 서성거리는 팔복 어귀
 누구구의 발자국이 유난히 길게 패였다
 채운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 자리는 비워져 가고
 낮은 기압골을 따라 이곳을 떠나야 한다
 찬 바람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희끗희끗 날리는 눈발도 잠시
 돌아갈 기차를 기다려야 했다

*구절리:강원도 정선군 북면에 위치한 폐광촌

농과대학 명칭변경을 바라보며

농업후퇴정책 의심...자금심갓고 해결

갑자기 불어닥친 농과대명, 과명 개칭에 대해 여러종류의 학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발표되어 버섯이 나와 있으니 말이다. "내년부터 생명자원과학대로 바뀔대" "우리와는 식물자원학과라더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등의 학우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명칭변경이 우리들에게 던진 파문은 굉장하기 무더기인 것 같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야?" 등의 학우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명칭변경이 우리들에게 던진 파문은 굉장하기 무더기인 것 같다.

대학교육이라 함은 교수 학생이 그 주체가 되어 시대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와 실천 활동을 본질로 하여 대학의 성원 하나하나를 건장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즉 대학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이라 함은 수동적, 기계적 상품화된 인간을 만들어 내고 점차 직업 훈련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의 대학상을 타파하고 학문에 대한 진

리탐구와 더불어 능동적이며 사회적 인자성을 양성해 낼 수 있는 방향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농과대명과 소속과 3개과의 일괄적인 명칭변경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이란 무엇인가?
 농업은 우리 경제활동의 제1차 산업으로서 사회생산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 점점 더 폐쇄해져 가는 농촌을 살려 보자는 취지에서 내놓은 것이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정책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김영삼정권의 농업발전정책은 수인농산물 개발을 본질로 하여 대학의 성원 하나하나를 건장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즉 대학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이라 함은 수동적, 기계적 상품화된 인간을 만들어 내고 점차 직업 훈련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의 대학상을 타파하고 학문에 대한 진

으로 다가 온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단순한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닌 농업에 대한 장기적, 실제적 정책 확립, 교육 환경의 양적 질적 개선, 대학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바라 보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속에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88년 선배들의 친절한 발자취를 담은 '동국발전을 위한 힘의 문'에 담겨진 교육과정위원회의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교수, 학생이 함께 찾아내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즉각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의 자금심과 관심여부가 여타의 문제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대표, 학생회장으로, 교과위로, 농과교과위로 의견을 모아 힘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학적, 현실적 대안과 방법을 모색하여 농업사랑, 농대사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은석
 (농과대 농업생물학과)

제1회 동국아마추어 축구대회를 마치고

자유로운 지성, 튼튼한 체력, 올바른 양식의 본교 아마추어 스포츠 축구회에서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개최된 제1회 동국아마추어 축구대회를 무사히 끝마치게 된 기쁨과 영광을 37개의 출전팀과 동양 1만 학우들에게 돌리고 싶다.

무엇보다도 토트축구회에서 처녀 개최로 인해 운영상의 많은 미숙한 점을 드러냈으나 운동장 관계로 인한 짧은 경기시간 변동에도 아무런 불평없이 순순히 따라준 여러학우들의 협조와 배려는 대회운영상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경기마다 승부를 떠나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갈채를 보내는 모습은 아마추어 스포츠만이 그리고 진정한 지성인만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과거의 다소 유희적인 동양인들이 이번대회에서 보여준 도전적 패기와 단합된 힘을 한층 더 승화시켜 어느분야 어느곳에서든 동양인들이 최고의 위치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진 동양인들이 노력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대회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토트 축구회 선배들과 학생회 관계자분들을 그리고 토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에는 더욱 단장된 모습으로 만날것을 기대한다.

고학배
 (문과대 국문과 토트축구회 기획부장)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박흥충장 발인 기사

내용빈약, 신속성 결여

지나호 동대신문(1155호) 사회면에 '박흥충장 발인 파문일지'라는 제목하에 기사가 실렸다. 기사를 접하고 나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보도의 신속성부터 살펴본 것들. 기사를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이 거의 한달가량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간도 아닌 지난호에 실려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특성상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두번째는 내용 및 기행의 무책임성이다. '우사파'라는 민감한 요소를 매일 일간지마다 실렸던 것을 감안하면 동대신문의 객관적인 기사는 독자에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으며 사고의 기회도 제공치 못하고 있다. 그러한 피상적 내용보다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고 박흥충장의 관용클럽발인내용-우사파명단, 북한 의 장학금으로 교수가 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상 명백한 불교조죄에 해당된다는 점, 그가 신부라는 신분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난 89년 평양출전 당시 같은 입장의 신부가 불교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박했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학으로서 가져야할 건전한 비판의식이 아닐까. 어쨌든 그 기사는 기행의 도의 무책임성과 빈약한 내용, 신속성의 결여로 대학신문으로서의 역할이 부신했다.

남궁원
 (농과대 농업경제학과 본사모니터)

신문 전체의 목소리 하나로 통일해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4부에 속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호 동대신문의 기사들은 이러한 '소명의식'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보여 안타깝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경주 총학생회장 사퇴'에 관련된 취재기사나 고정진이 논리정연함을 잃고 있다. 하나의 기사안에서도 말하는 목소리가 많아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신문 전체의 목소리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6면 문화면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지적된다. 역사의 숨결 '동일 길목 절원을 찾아'라는 답사가 실려 있고 그 바로 아래 기사는 '무분별한 현장답사'라는 답사여행으로 인한 문화재의 파괴기사를 실고 있다.

김필중
 (법정대 야법학과 본사모니터)

동/문/칼/럼

마음의 고향 '동약'

재판이 있는 날은 법정으로, 그렇지 않은 날은 사무실에서 재판 준비로, 아니면 찾아오는 손님에 맞고 그들이 가져오는 생활속에 얽힌 사건리레를 하나하나 풀어가 는 상담을 하며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볼 경험도 없이 바쁘게 생활한다.

내게 의뢰된 사건들은 사안의 경중, 복잡성, 시간의 완급, 당사자의 상황, 담당자의 성향 등이 투 말할 수 없는 인자들의 변수에 의하여 여러단계를 통하여 종결된다.

간혹, 변호사인 내전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유리한 결과나 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가 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면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내가 이 사건을 맡았으므로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하게 매듭지어질 것을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무분별한 현장답사'라는 답사여행으로 인한 문화재의 파괴기사를 실고 있다.

대륙에 입학하여 신입생으로 접하였던 명진관, 범용대가 있었던 도서관장자, 졸업반이 되어 이전한 동국관, 친구로 지내던 동

급 미대생의 실기실이 있어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교양학부건물, 그리고 5월이던 벚꽃이 휘날리던 우체국앞벤치, 야구선수들이 시원스레 쳐 날리는 야구공을 보면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던 대운동장 스탠드, 그 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시에 낙방한 후 임대하여 3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고시공부를 하던 계산화사, 그뿐이런가! 동약 곳곳에 내가 동약과 인연을 맺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6년동안 나의 발자국과 손때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는가?


도심속에 자리잡은 여유로운 캠퍼스를 돌아볼 때면 내 마음은 순수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이곳에서 같이 생활하던 그때의 사람들은 만날 수 없지만 젊은 후배들의 밝고 생기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부터 옛정취와 더불어 세속에 때를 잃은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

오늘도 나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넉넉한 내마음의 고향, 이곳 동약에 올라와 따사로운 초가를 햇살을 맞으면서 잠시나마 일상생활의 묵은 때를 훌훌 털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돌아가 내일을 준비하며 내자리로 돌아온다.

김창규
 (변호사·법44졸)

오늘을 사는 동국인 - 김학정(통계3)군

봉화사 어린이 법회에서



수원역에서 버스로 10여분쯤 들어가자 한적한 시골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이 마을의 분위기를 한층 돋워주는 자그마한 절이 있었다.

봉화사. 이 곳에서 김학정(통계3)군은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아이들을 대하느라 정신이 없다.

"불교라는 것이 깊은 산에 들어가 혼자 도를 닦는 그런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김군은 교회에 초등부, 중등부등이 있는 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다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요즘엔 일부 깨진 스님들과 많은 불자들이 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군은 봉화사의 지난 여름수련회때 어린이법회를 알게된 후 시간나면 종종 이곳을 찾아가고 있다.

그가 찾아가는 이 어린이법회는 총 어린이 수가 10여명밖에 안되는 작은 규모다. 그는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마냥 즐거운 모양이다.

아이들과 함께 공이놀이 하는 그의 표정은 조금전 대운동장에서 가졌던 법회때의 진지하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중요적인 면에서는 만족하지만 조계사 법사 등을 접할때면 "참 슬슬하다"며 "서로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있다.

"현생에서의 한번 웃기시침은 전생에서 천번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

김군과 봉화사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龍)

목 먹 골

■영문과 영문학 고시생 노철오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번엔 꼭 붙어라 - 붓

■연옥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9월 10일 - 日語日文 泫태가

☑축하합니다

■이재호(니기갈)의 생일을 허벌나게 이빠이 축하한다 외탕카!! - 마리오 9월12일

■누리어울림의 2학기 첫 사진 실습을 축하합니다. - 브랜든

■9월15일은 행정학과에서 쓸모없는 승모의 군인대 날입니다. 모두모두 축하해 줘시다. 푸하하! - 화주회

■영문94 노철오의 생일 축하 - 龍

■"축"공인회계사 최종합격을 축하드리며... 김익수(90) 박인숙(90) 김선화(90)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 회계학과(9) 9월10일

■9월13일! 효열님 탄생을 축하해 사랑해. 우리 결혼해 - 이쁜이와 아이들

■정훈이의 30시간 입대과 불명에 제대를 추가하며 - '여름'현역생 대상자

■재욱아!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 - Y.H.Y

■신인생 대부과 복학생 북태뷰를 축하합니다. - 92학년 일동

■9월17일 은영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남은 20살의 시간을 잘 보내길 바란다. - 너를 사랑하는 이쁜 은혜가

■장팔이형! 제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형의 영원한 중 규하가

☑알립니다

■검도부가 24기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는 전산통계를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과를 지지해주세요!! - 불사 전통

☑수고하셨습니다

■공화동민군의 후예들(고창

동/약/광/장

정음 향우회)이 친선 체육대회를 지난 토요일(10)에 가졌습니다. 서로의 벽을 허물고 진실된 가슴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정음향우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개벽을 꿈꾸며 고창인이

■선봉 무역 드디어, 바이호르, 축구결승전서 우승하다 선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무역 93일동

■불교학생회의 개강법회와 중흥고사를 여범하게 치뤄내시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밀어주세요. - 지난날 주정열던 한대민씨

■아리랑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립의 목적제 지수 '탈'

☑그리고...

■맑스철학연구회 '심포지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 현정-윤숙과 94일동

■문영(통계학과)아! 사랑한다. - 강양(국고 94)연극 잘해!

■W-J - 쪽마고우

■1994.9.9.9. 동가들이! MT 잘 다녀와라 술은 적당히 먹고 월요일날 즐거운 얼굴로 보자! - 史學科 '93 외로문자

■한국사회연구회의 발전을 기원해요!! - 태지

■사랑스러운 후배가! 이번 학기부터 마음을 굳게 잡고 공부에 열중하기로 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A'가 아무조록 all A'학점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포선배가

■9월말 학술제에서 멋진 심포를 할수 있을 거예요. 민주법학회 화이팅 - 94

■이번 추계리그 우승과 L·A·E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 L·A·E 19기

■지리교육과 답사가 무사히 끝났어요! - 지교이해들

■강양(국고 94)연극 잘해!

온 방 골

☑축하합니다

■국사학과 94학번 선민아 생일 축하해 - 현주

■유경이가 병원에서 퇴원 했대요. 축하하구요 건강조심하라고 전해줘요 - 나

■정영(야)94학번 진환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 어의희

■규호선배, 입대 축하해요 - 해근

■대철아 생일(9월19일)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법정대 자료집 발간을 축하드려요. 좋은 글들이 듬뿍 담겨 있는 책. 학우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생하셨어요. - 龍

■평중선배 생일 축하해! 한국어 많이 배우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게요... - 박옥 통역관

■오늘을 기념하려 자필 마련했어 정림이와 기연이의 일주년! 축하해요. - 사·복과 Miss우

■13일 성용이 오빠아의 생일 축하합니다. - Jump 94

■22일은 못내미 가필드 재오 생일! 축하한다

☑알립니다

■소낙비에서 매주 목요일에 시청각실에서 좋은 영화 보여준대요. - 가Z

■제2회 문예회고(노래, 마당극, 민화, 풍물)에 뛰어난 참가 바랍니다. - 민문연의장-홍

■9월28일 부모은중경감의 초청 대법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 총학 종교부

☑그리고...

■마인드 랩에 대해 알고계시거나 이용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서로 연락바랍니다. -0562)84-0210(10:20분 이후)

■민호야 휴가 나왔는데 못봐서 미안해. 그래서 東大신문을 보내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 명일

■병위나, 웬지 내가 힘이 없어 보인다. 원래라. 병위나의 멋진모습!! - 94 880324

■동규선배! 군대 잘 다녀와요. - 알샘 94학번

■Duco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철원에서 군인이

김영삼 정부의 정책 표류

행정구역 파문, 위기관리 능력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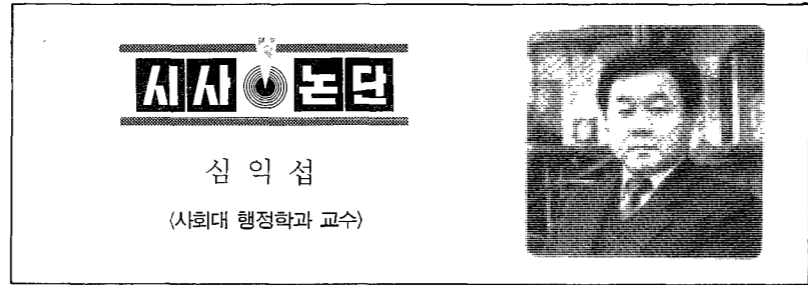
국기와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활동의 표현인 각종 정책들을 어떻게 잘 수행하여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늘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정책은 이해상충과 갈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무력한 정권이 정책을 만지다보면 혼란이 야기되게 마련이다.

행정이나 정책의 기본논리를 도의사한제 일반적으로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최근의 행정구역개편 파문은 이러한 점에서 김영삼 정부의 정책표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론적으로 발상과 우왕좌왕하는 혼돈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행정권의 국정 운영방식과 위기관리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불을 지른 정부가 조정을 능력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사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뺨맞았기와 땅지키기 대결'에 빠져들었으며, 개별대상으로 거론조차 안된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속에 분노하는 등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떠돌고 있고 95년 6월에는 4대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어있는 지금, 여전히 일방적으로 위로부터 주도되고 있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재확인할 것 같아 많은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3대요건은 자치행정구역과 지역주민 그리고 자치권한이다. 이 중에서도 행정구역은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공간단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체제의 정착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때 행정구역이란 지리적·법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적 조건에 기초하여 인간의 사



심익심
(사단대 행정학과 교수)

회적 활동이 수행되는 생활터전과 동시에 행정적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행정구역이 자치구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행정구역은 지방자치의 성체와 직결된다 하겠다. 이러한 자치구역의 정치적 의미 때문에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규모와 관련하여 항상 논쟁이 되어왔다. 그러나 역대정권의 정치적 정동성문제 때문에 구역개편은 항상 소극적이었고, 그나마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정당성을 지닌 문민정부 임을 자부하는 김영삼정부는 행정효율성의 극대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앞세워 개혁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구역개편에 손을 댔다. 지난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도·농 통합형' 방식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제1단계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

던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이 나름대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확산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행정권의 안이한 정책대응에 기인한다.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광역화·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해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구역개편은 정치논리나 중앙정부 또는 특정인이나 행정기관의 이기주의에 휘둘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대결' 양상을 야기시킬 정도로 이해관계자들의 감정이 고조되어 파문이 확산되었음을 현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10여년간 유지되었던 지방자치기, 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중단된 지 30년만인 지난 91년 다시 부활되어 이제 현직정부의 잔여기간을 10여개월 남겨두고 있다. 한편 정부수립 당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9도·14시·133군이었었는데, 이후 직할시와 시의 승격설치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1특별시·5직할시·9도·68일반시·136군으로 변화되어 있다.

결국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구역개편의 기본적인 특징은 도와 군은 비숫하게 유지되어온 반면 직할시와 시는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는 현재 80%에 도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볼때 당연한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전통적인 농업형 지방자치구역의 개편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때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바 없는 정치행태와 행정권의 정책적 무능력이다.

한·약분쟁이나 농안법 파동등에서 보듯이 김영삼 정부의 정책표류의 그예라면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인 사례가 수없이 많았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부처갈거주의에 의한 부처갈거의 정책대립, 당·정간의 불협화음, 여권내 계파간의 이해대립,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나마 정부의 즉흥적인 줄속행정 때문에 국가정부는 앞으로 되고 국민들은 뜻하지 않은 지역갈등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는 책임을 현정권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개혁중의 개혁'이기 때문에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권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잘못된 정책은 쓰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여, 김영삼정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행정구역개편 파문과정을 두고두고 되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보법 철폐논의

야당, '질서보호법' 용어정리수준 그쳐 전면 철폐위반 방안강구 시급

문민정부 출범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가보안법'의 철폐여부는 의를 야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겠다고 밝혀 새롭게 정치장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측은 유류과이 라운드 협정 비준 반대 및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정부 공세와 아울러 국가보안법 철폐를 중요시안으로 상정,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 국보법은 지난 48년 일제하의 '치안유지법'을 확대·중보, 현재까지 수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통해 거대법률로 강고 되어왔다. 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먼저 통일외교의 한 주제인 북한을 '한국가단체' (제2조)로 규정 원천적인 자주민족통일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모든 세력을 '이적단체' (제7조 제3항)로 낙인, 탄압을 가해왔다.

또한 국보법은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제4조 제1

항 제6호) '한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고무·동조' (제7조) 등 불명확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역대정권의 위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무소불위의 악명을 떨쳤다. 이러한 규정들은 각종 정치조직 활동의 통제 처벌뿐만 아니라 학문연구, 문화예술, 언론·출판활동을 통제하는데 요긴하게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보법은 현시기 남북정상회담 논의 및 특히,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가 지난 91년 채택된 상황에서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합의서와도 정면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려가 철거반원에게 '김일성보다 못한놈'이란 연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유류를 수집했다는 것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국보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할 명분이 뚜렷한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이 국보법 철폐를 제기하며 상정한 '민주질서보호법'을

살펴보면 △현행 '한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 △'이적단체' 대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조직' △'한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란 개념을 '국가안정을 침해하는 행위'로 바꾸는 것 등이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그러나, 지난 대선의 공약 이행이자 평민당 시절 제출한 법안을 계승한 것으로 국보법에 사용된 용어의 불명확성 및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한다는 수준이며 이는 국보법의 완

전폐지가 아닌 용어정리 정도의 축소조항 개정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신기하총무의 '국보법 완전철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도 철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단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표명한 '적극대응' 방침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비켜간 논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빨갱이 컴플렉스'로 '반공'의 틀내에서만 민주주의의 존재의미를 떠올렸던 과거, 정권의 '실정법'이었던 국보법의 존폐여부는 국보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불가하여 없이는 문제로 굳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국보법 폐지논의는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는 별도로 주권국가 국민의 조직적 정치활동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정취와 결부해 생각할 문제이기때 '정국민의 공론화'가 법제도 개폐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재환 기자)

사설

학생운동, 일대도약을 기대하며

수확이 생각나는 명절 추석이 얼마앞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시기에 학생회에서도 큰 결실을 맺기위한 노력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지난주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총장선출을 앞두고 있는 학교의 현실을 인식하고 총장 직선제 사수투쟁에 함께 할것을 합의했다. 제26대 총학생회 출범이후 합의라는 것을 찾아보기는 무척이나 힘들었다. 이번 합의는 학생회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될대로 되어버렸던 지난 시기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학생회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수 있을 것이다. 총학생회의 첫사업이었던 등록금 할상때 부터 시작된 학생회의 대립과 반목은 총학생회 선거, 학생복지위원회 선거를 거치면서 한층 더 심화되었고 이어 출준위 사태로 총학생회 회장이 사퇴하면서 결집을 수 없을 만큼 학생회는 갈라져 버렸다. 이로인해 학생회의 지지기반인 학생들은 방향성을 잃고 표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2학기, 총장선출이라는 중대한 시간앞에 학생회의 움직임이 전 학내 구성원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지금, 학생회는 총장직선제 사수라는 그르칠수 없는 대의 아래 합의를 해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이해 타산에서 나온 합의라 할지라도 이는 실추된 학생회의 신뢰회복과 학생회의 목소리를 높여내는데 한 몫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도 그럴것이 총장 직선제 사수 투쟁이라는 시간인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학생회가 조직적 힘을 가지지 못하고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자칫 학생회 사업의 오류로 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이다.

또 총학생회와 6개 단과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차이와 직선제 사수 이후 가지고있는 대안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합의의 지속여부는 쉽게 낙관할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우려되는 사안으로 총학생회 선거도 한몫 거든다.

이렇듯 우려되는 사안도 많다. 그래서 이의 극복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우선 '민주총장 추대위원회'라는 총학생회의 내용과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학생 대책위원회'라는 6개 단과대 학생회의 입장에 대한 내용상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수준에서의 정책적 내용을 공유 할수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후 총학생회 선거 역시 예전의 모습인 대립과 반목의 심화점으로부터 탈피해 정책의 내용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안에서 치뤄내야 할것이다.

총장 직선제 사수의 내용에서 보여준 것 같이 학생회 내부의 의견 통합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학생회 스스로가 대립의 벽을 극복하고 학생운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일대혁신을 이룩해야 할때인 것이다.

중국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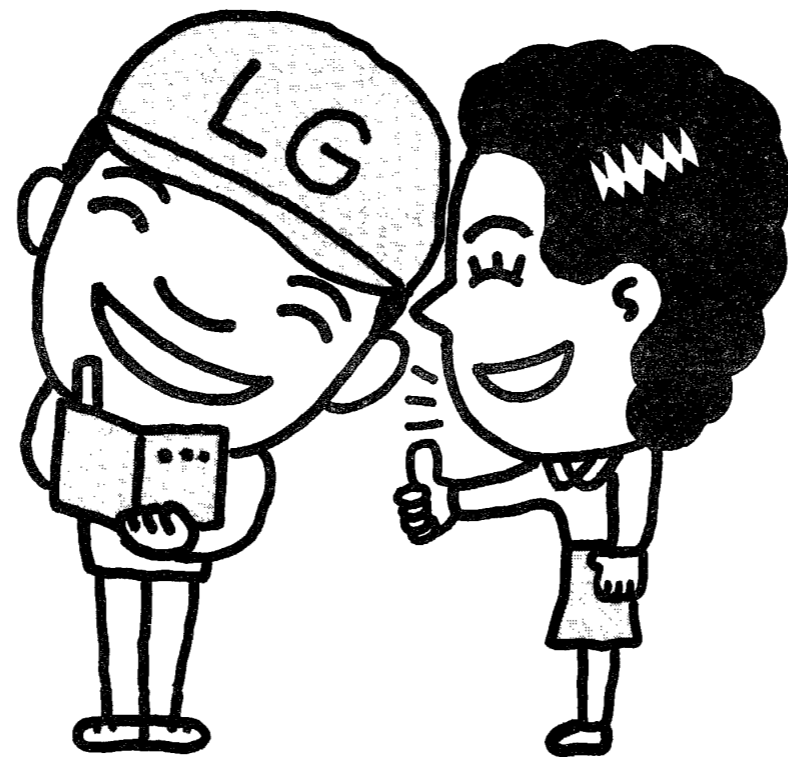
박현진



럭키금성의 실제변혁

고객을 위한 기술이 먼저!

단순한 기술 경쟁보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용가치를 얼마나 기술에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주부의 귀뜸”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고객 제일이면 고객 제일이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는 또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을 듯하다. 고객 제일이든 고객 존중이든 결국 추구하는 바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것,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경제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치일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제품은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꼭 필요한 것이 되게 해야 하며 그럴 때 그 제품은 고객에게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아이들이 옷을 벗어 던지면 세탁기 투쟁이 너무 약해서 부러진다는 주부도 있고, 대형 냉장고는 움직이기 어려우니 바퀴를 달아달라거나, 또 고무바퀴를 냉장고 뒷면에 붙여 주면 백이 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등,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만 가지고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고객은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귀담아 듣고 생심성껏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세심한 배려를 원하고 있었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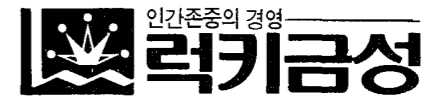
가업에서 일반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내는 것보다

그 기술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용가치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기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소한 비발이라도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기술적인 성의'였던 것이다. 고객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제품에 반영해야만 그 제품이 팔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고객에게 참된 가치를 제공하는 길 아니겠는가.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 고객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외국 유망기업들과 충분히 겨루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쌓은 역량을 계속 연구개발에 쏟음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날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외국 유망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앞세우고 들어서서 일장 기간 시장을 잠식하려다 결국 고객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한 우리 제품을 찾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김밖에 없다) 중에서



기적시리즈

김일성 사망 후 남한 사회 변화

- 1. 정계 보수주의 실체와 민민운 탄압 의미는.
2.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은 몇%.
3. 정상회담은 언제 재개될 것인가.

시사 초점

대학 언론 탄압 심화

전국의 대학신문사 곳곳에서 개강호 발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된 공안정국의 파장속에서 학원탄압과 함께 대학신문에 대한 편집자유권 또한 학교당국에 의해 침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 '전대신문사'의 경우 지난 달 31일 전대 총학생회 분장소사건 진위공방에 대한 기사와 범민족대 회 기사에 대해 학교명예실추와 불법집회기사제재를 이유로 주간교수의 기사삭제 요구가 들어왔으며, 목포대 '목포대학신문사'는 지난달 30일 주간교수 임의로 사설위원 교체, 지난 2일 1면 특기사중 학원침탈과 관련된 '최후탄 난사, 투석등 김영삼 정권본질 드러내'란 제목에 대한 수정요구와 3면의 '북미회담결과에 따른 현정부의 입장'이라는 기사에 사 전검열, 일부삭제등의 제재가 가해 졌다. 결국 두 신문사는 학교측의 편집자유권 침해를 거부, 발행중지 처 분을 받았다.

대학신문의 자율성과 비판기능을 무시한 '편집권 침해'는 수구적인 관점에서 자행된 권위주의에 불과 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현 정권의 공안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대학신문 탄압에 대한 전국대학신문 기자연합(의장=김진현, 부산대 신문사 편집국장)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사회부)

획기적 개선책 내년 기대 상호 불신·체제 불인정 타파해야

분단이후 남북간에는 1960년대 말까 지 서로 대화없이 대립경쟁하는 이른바 대화없는 대결시대'를 유지하였다. 197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남북한은 대화를 추진하면서 남한은 유신헌법체제과 장기집권준비를 하였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주석제를 통한 권력집 중을 꾀하는 등 남북한 공히 남북대화를 내부권력강화와 장기집권에 이용함으로써 대화없는 대결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1970년대말 서로 상대편을 무시하는 듯 자기주장만을 상의 소위 '귀머거리들의 대화'를 지속하다가 1980년대중반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과 관련하여 경제회담, 국 회회담, 체육회담등과 이산가족고향방문 과 예술단교환 공연 등의 '부분적 결실의 시기'를 맞이 하였다. 그리고 1988년 이후 1992년까지 고위급대화가 시도되는 등 남북대화의 신속기인 '당국간대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고 위급회담을 응하지 않는 대신 핵사찰문제를 둘러싸고 서방세계와 갈등을 빚다가 3월에 준전시상태 선포,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등의 일련의 대결과 긴장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긴장상태가 계속되었다. 1994년 6월 김일성은 김정일에 의해 조성된 대결국면을 화해국면으로 전환시키기위해서 미국과는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그리고 남한과는 최고위급회담(정상회담)을 제의하고 핵개발문제로 조성된 위기를 해소하기위 한 대타협을 모색하였다.

김일성의 정상회담제의를 남한당국이 조인없이 수락함으로써 남북한은 1994년 6월28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갖 고 김영삼대통령이 7월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동안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 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으로써 분 단 반세기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는 긴장과 대 결로 점철된 남북관계에 일대 전환이 있 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상회담 개최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중 7월8일 정상회 담의 당사자인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갑작 스텁게 사망함으로써 모처럼 맞이한 남북 관계개선의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우려하면서 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이 불 투명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 게 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통 해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의 틀을 확고하게 만들려고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여러번 촉구해왔는데 북한 은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별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차고위급회담때 김일성주석이 강 영훈총리에게 "총리회담에서 제반문제들 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최고위급회담(정 상 회담)도 개최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정상회담의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반세기만에 어 렵게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불부 명하게 되었고, 남북한관계정상화를 통한 이산가족상봉 등의 현안문제 해결도 당분 간 어렵게 되었다.

분단반세기에 가까운 현재까지 남북한 의 최고당국자간의 정상회담이 한번도 열 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 던 우리민족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따 라서 분단의 고통을 하루하루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 남북대화에서 나타난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불신과 상대편체제에 대한 불인정문 제이다. 그리고 대화를 정면적 차원에서 이용함에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정상회담은 쌍방간의 신뢰조성을 통한 분쟁해결에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한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 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 다.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동·서독수상의 상호방문을 통한 양독기본조약체결과 관 계정상화가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이 어 무리 어렵고 해묵은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국의 최고당국자가 서로 교환 방 문함으로써 쌍방간의 신뢰조성을 통한 분 쟁해결에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 전례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사후 남북정상회담은 유보상태로 회담의 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북한은 7월11일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 일정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이용 구 통일부총리 앞으로 보내 "우리측(북한 측)의 유고로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김영삼 대통령도 7월15일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열기위한 합의가 계속 유효하다는 원칙이라 대북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김일 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남북한 공히 인식을 같 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서의 조분분화방 침과 관련하여 김영삼대통령을 비난하는 방송을 7월15일부터 재개하고 "남북최고 위급회담을 앞두고 생기 뜻하지 않은 불 상사를 계기로 다시 대결을 선포하는 남 조선 당국자들의 언동을 두고 대화의지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 의 정상들까지도 김일성주석 사기에 애도 의 뜻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음에 정상회담의 상대편이고 동족인 김영삼대 이 조포하고 경망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등의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김영삼대통령도 평양에서의 김정일타도 전단살포설을 밝히고, 남북간 체제경쟁은 이제 끝났더라도,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 북한을 자극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김일성사후 남북관 계는 경색되고 있다.

남북한 당국의 상호 비방은 지난 6월28

일에 발표하였던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서에서 밝힌 "쌍방은 화해의 단합, 신뢰 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남북정상회 담을 좋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합의 문 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김일성 사후 클린턴대통령이 애도표시를 하고 북한과 예정되었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재개하여 상호연락사무소설치에 합의하는 등 북·미 관계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이후 국제관 계는 냉전시대의 이념과 명분중심의 진영 외교로부터 탈피하여 실리중심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핵개 발카드를 이용하여 긴급한 경제난을 해결 하고자 미·일과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 는데 비해, 남한과는 조문거부와 정부당 국자들의 일련의 대북발언을 문제삼으며 서 남북관계를 내부안정에 이용하며 한 미공조체제를 위해 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김정일의 실질적인 권력승계는 이루어 진 상태이지만 1백일간의 김일성애도기간 이 지난후 공식적인 승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 정상회 담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분단반세기를 맞는 1995년 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은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정 하고 있으므로 통일은 이루지 못할지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한 북한과 미·일관계개선이 남북대화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체제가 공고 화되면 곧바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때 분단반세기를 맞는 내년도 에는 남북간에 획기적인 관계개선이 이 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남북한 모 두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의 정신을 훼손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관계개선은 이 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의하여 야 할 것이다.

탈냉전시대를 맞아 남북한은 서로 흡수 통일의 야망을 버리고 민족공동이익의 추 구와 상호존중을 하여야 하며, 감자의 양 보와 타협, 남북한 현안 문제해결에 있어 경쟁주의와 정경분리접근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남 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탈냉전시대의 극경없는 경제전쟁과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 세속에서 우리 민족의 살길은 남북의 평 화통일에 의한 단결된 힘으로 세계의 국 가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는 데 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사회대 북한학과 교수)

심층 조계사난입...불교 자주화 위협

군사특재정권도 아닌 소위 '분민정부가 반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국 불교의 종본산인 총무원이 있는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폭거이다. 이는 정권 자체의 본질 적 한계와 정권으로부터 아직 자주화되지 못한 종단개혁의 불완성에 그 근본요인이 있다.

이번 공권력의 조계사 난입에서 김정권의 두가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첫번째는 신공안정국의 기세를 등에 업 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운동세력에 대 한 탄압책의 연장으로 이들 눈에 종교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불교의 중추인 조계종 개혁종단에 대한 분열, 와해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종 단의 개혁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마무 리에 와있다. 일반 사회의 헌법적인 종헌 개정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총무원장 분사주지 직선제' 등 3원본립의 확보로 모아지는데, 이 종헌이 통과되면 기존의 정권에 예측된 기득권 세력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또한 기득권세력을 통해 불교를 예측화 시켰던 정권은 불교 라는 친정부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9월1일 조계사 난입에 또 하나 충격적 인 것은 공권력의 난입을 묵과한 총무원 집행부의 입장이다. 개혁종단의 일부 집행부가 3.29, 4.10법난의 해결이 본질적으 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권력 투입을 묵과한 것은 그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다고

한다. 일단 종단개혁의 핵심을 종헌 통과 로 보고 정부의 '정기검 지도부 퇴거 요 구'와 반개혁세력의 '종단내 주사파 운운 이나 운동권 활동'을 핑계로 벌어지는 개혁세력의 음해공작을 막고자 하는 교육 지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는 종단개혁이 종교에는 정권에 대한 자 주화에 핵심이 있다고 볼때 원칙과 중심 을 잃은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9월1일 공권력의 조계사 난입사건 은 개혁세력안에서는 '제3의 법난'으로 규 정되어 대정부 성명과 단신능력등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 로 이러한 법난을 막는 길은 불교의 자주 화를 꾀하는 길 밖에 없다. 개혁은 대중 정치의 꽃이라고 했다. 개혁을 위한 대의 에 동진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이해와 차이 를 접어두고 합의하고 단결했을때 개혁 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문민 정부의 이면에 숨겨진 '민간파시즘적 폭 려'에 대해 단기적으로 저항하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의제와 정권의 예측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종교로 바로 설 수 있는 힘 또한 전 불교도의 단결과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모습을 바로 세우 는 데 있는 것이다.

정 한 신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간사)

통일로 28살 새대기의 분노
9월12일 아간 1,2,3 교시 전산통계학과 수업이 모두 끝났는데도 학생들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가끔씩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가에선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항상 이시간이면 도서관에서 볼수 있던 그를 그 강의실에 서 만날 수 있었다.
그는 28살의 전산통계학과 94학년 새대기이다.
이름바, 팬하다는 연구소 연구원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 그가 '전산통 계학'을 공부하기위해 순탄하던 인생의 향로를 바꾸었다.
"서울에 있는 대화중에는 두개 대학에만 전산통계학과가 있어요. 통계학의 '전산'이란 두글자가 나의 결정을 한번 도 후회하지 않게 했어요"라고 애써 웃을 그는 그의 모습뒤엔 어느새 어둠 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전산통계학과가 통계학과로 과명칭 이 변경된 것이다.



1994 FALL COLLECTION
내가 원하는 세계, 소프트 트래디셔널- 가르프블랑슈
FASHION CREATOR 통일레나운
CARTE BLANCHE The Spirit of Tradition
■ 가르프 블랑슈 사업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11(정현빌딩5F) TEL : 5315-363-366 ■ 매화점 서울 서대문구 정자동423-2186
롯데점동대문636-2840 롯데점동대문417-2368 현대점동대문517-0650 현대점무의점동대문566-8690 신세계점동대문633-1799 그레이스
325-1806 애경830-1973 ■ 인천 현대점동대문523-4604 ■ 부산 부산(백)505-4686 ■ 대구 대구(백)425-2436 동아(백)425-4605
동아(백)255-2729 대백P/L426-2995 ■ 대전 동인(백)254-6148 대전신호점482-8684 ■ 아산 신안(백)41-4161 ■ 울산 모던
(백)60-7437 ■ 광주 가든(백)224-6187 ■ 구미 동아(백)53-8297 ■ 대리점 충남 대전점226-2272 ■ 충북 청주점58-1762 ■ 경북
포항점41-1551 영주점32-9693 ■ 강원 강원점68-5604 충주점44-6666 ■ 전북 전주점64-8856 ■ 제주 제주점53-5775

제4회 민교협 정책 강좌를 듣고 —현단계 한반도와 미국관계 학문적 재조명

한·미 관계 고민 기회 —구체적 방향제시 못한 아쉬움 남겨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에서는 지난 10일 '현단계 한반도와 미국관계의 학술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제4회 정책강좌'를 열었다.

민교협 사무실에서 가진 이날 강좌는 이제까지 세차례의 강좌를 통해 학술관계에 있어 한미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으나, 발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의 준비와 홍보작업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해 주제에 대해 집중되고 참석자도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최종적으로 채택·발표된 주제는 정태구(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씨의 '한반도와 미국의 역사적 관계와 박거음(삼영여대 영어교육과)씨의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적 대안반도정책'이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정태구씨는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반도의 운영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에 대한 인식도 과대공정론과 과대부정론의 극단적 상황이었음을 지적하고, 최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 정세의 변화와 통일문제 현실적 대두에 따른 제반사안들이 한미관계에 대한 경각적 태도를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

했다. 이 주제는 한미관계가 미군정기, 한국전쟁전후, 50년대-60년대-70년대, 광주항쟁, 80년대 중반이후로 세분화되었다. 각 시기별로, 미군정기에는 미국측이 최종적으로 단정체력을 옹호해 미국적 민주주의의 이식보다는 반공주의를 택했음이 지적되었고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문제는 완전한 무죄론에서 일정한 협의론사이에 위치지워졌다. 이후 70년대까지는 반공반소의 군사적 이해에 따른 한국의 중속, 미소냉전에 따른 유엔대응전략의 일환인 지역통합전략책, 대당트분위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두개의 한국정책으로 변화했으며, 광주민중항쟁때는 레이건의 커크패트릭독트린으로, 그후엔 저강도전쟁(Low-intensity War) 등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특히 80년대후반 소련과 동구붕괴로 야기된 냉전상황은 이후의 통일문제에 있어 미국 못지않게 국내 강경파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모든 잘못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들의 매너리즘에 대한 비판과 남한내 강경파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로 제시되었다.

이어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와 한반도'주제발표에 나선 박거음씨는 우리문화가 서구문화의 병폐에 노출되어 가고 있으며 소비지향적이며 활달적인 전박하고 깊이가 없는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의 나라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문화발전이 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적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했다.

발표자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지배문화는 19C 중국중심의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일제강점기후 일본에 의해 재해석되고 매개된 서양문화에 의해 지배된 서기를 거쳐, 미국과 관계가 형성된 미군정기에 대미중속질서로 재편되고, 50년대 원조경제에 의한 소비문화 주입기, 60-70년대의 적극적인 서구문화보급기, 80년대 미문화에 대한 자발적·능동적 동화기로 분류된다. 80년대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생활문화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이 다국적 광고를 통해 확산되고 우리문화와 미국문화의 경계선이 모호해 졌다.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언론-라디오-TV등 남한사회의 방송의 구조적 대미중속 과정이 제시되어 연대별로 개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고, 군사와 매스컴의 연계

에 따른 미디어제국주의, 한국문화의 미국화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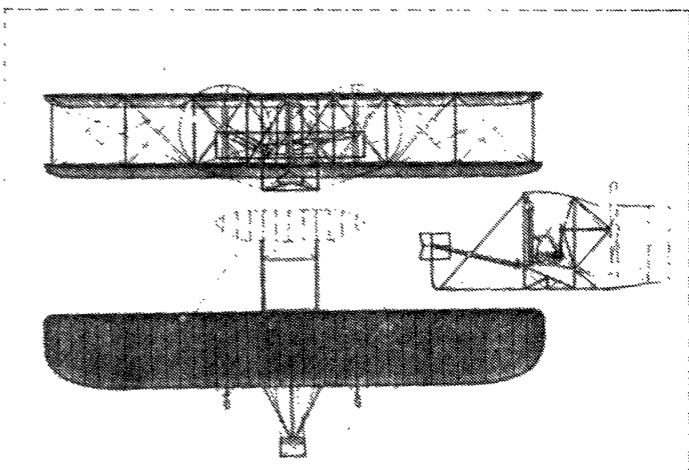
문화제국주의 침투에 따른 문제해결방안으로는 지방자치제실시로 인한 다양한 자생적 문화발전의 촉발이 제시 되었다.

즉 우리문화의 주제성 회복을 모토로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민주화를 통한 효과적인 극복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서구문화로의 동화·중속만큼이나 전통문화로의 막연한 회귀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번 정책강좌는 그 양이 많고 적응을 떠나 현실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듬어 삼팔으로써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었으나, 지나치게 피상적인 부분들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의식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이나 방향 및 척도설정 등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언급이 되지 못해 참석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서 창 훈
(대학원 정의과 석사과정)

과학에세이 —항공이야기



◇라이트 형제가 만든 플라이어 1호기의 3면도

이제 가을이다. 당신은 가을의 맑은 하늘을 우연히 바라보다 우연히 날아가는 새의 무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나도 저 새처럼 하늘을 날아 보았으면 하고 한번쯤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옛사람 중에서 몇몇 사람은 날고 싶은 욕망을 실천에 옮기려 시도했고 그러한 시도의 성공과 발전으로 우리는 새보다 더 빠르게 날 수 있게 되고 어떤 새 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의 꿈과 같이 생각했던 인간의 비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지금부터 주로 공식적인 기록들을 통해 간단히 더듬어 보기로 하겠다.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는 것은 고대 아시리아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슈타)을 보면 하늘을 날면서 세상을 지배한다 하여 날개를 달고 있다. 그만큼 아시리아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나는 것은 신성하고 동경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것은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던중이 이렇게 꿈처럼 여겨지던 일의 실현의 가능성을 제시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그는 미술뿐만 아니라 건축,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두각을 나타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로 새의 날개를 해부하여 날개의 구조와 나는 원리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는 나사를 보고 원리를 이용하여 날개를 제작했다. 그가 제작한 날개는 지금의 헬리콥터와 비슷한 원리로 헬리콥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는 공기 역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훗날 사람들이 비행기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17C에 이르러 하늘을 날기 위한 무모한 도전들이 잇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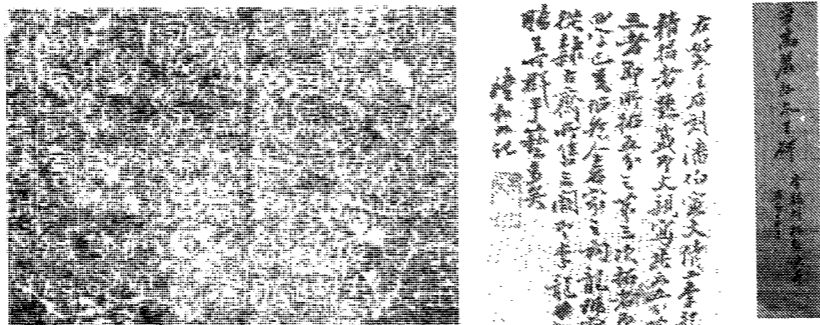
어떤 이는 긴 담요 같은 천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날개를 만들어 팔과 다리에 달고 감을 건너려 시도한 사람도 있었다. 후에 조지 케일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새가 날기 위해서는 자기 체중의 7-8배의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져 다시는 무모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한다. 조지케일러는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밝힌 항공학에 있어서 시조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실

제로 자신의 이론을 바탕으로 글라이더를 제작하여 어린 아이를 태우고 하늘로 날리는데 성공하였다. 유인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은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몽골피에르형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불을 지피면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검은 연기를 집어넣어 하늘로 날리는데 성공했다. 마침내 그들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루루와 로베르라는 사람들에 의해 비슷한 실험이 이루어 졌다. 이들은 뜨거운 공기 대신에 수소 기체를 사용하였다. 수소 기체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작한 기구는 몽골피에르형제의 그것보다 더 높고, 더 오랫동안 하늘을 날았다. 이후에 기구 제작이 활발해지고 보다 개량적인 기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구 안의 수소가 정전기에 의해 폭발하는 일이 있던 후 기구 제작은 뜸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기구는 위험성 많고 속도도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안전성과 속도를 위해서 기구를 능가하는 동력 비행기 제작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엔진이란 것이 다들 기관이었다. 다들 기관은 기관의 무게에 비해 내는 힘이란 것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제작해도 오래 뜨지 못하고 날개 자체도 안정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동력 비행기의 활로를 연 것은 라이트형제에 의해서 이다. 그 시대에는 무게가 가볍고 효율이 좋은 가솔린 엔진이 등장했다. 따라서 그들은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었고 날개 제작에 견고성을 더하였으며 수천번의 실험을 토대로 동력비행기를 완성시켰다. 그후 항공 산업은 날아 발전하게 되었고 전쟁을 통해 항공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졌다. 그리고 현재는 곡력 중대 뿐만 아니라 수송과 여객 산업에 이르기까지 항공 산업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기능에 있어서 엔진과 날개의 개발로 현재 우리는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연료에 있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 심지어 마이크로파에 의해 동력을 얻은 비행기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오 세 신
(이과대 물리학과 자연과학연구회)

광개토왕릉비 탁본 재해석

조사한 탁본과 석문 13종		
1 북탁본-3021326-3	8 북탁본-X/992.234/0241.1	
2 북탁본-302136-2	9 북탁본-22222-Y	
3 북탁본-302136-4	10 북탁본-O/992.234/0214	
4 북탁본-12/992.2341/0214	11 개인-왕선생	
5 북탁본-302136-1	12 개인-오성생	
6 북탁본-302136-M	13 개인-최선생	
7 북탁본-22222		



◇좌측부터 청말 금석학자 반조음이 이대룡을 파견하여 해온 완전한 탁본, 반조음의 친필 제철과 육회구의 기. 최초로 발견된 조규유수고본으로 고구려 호태왕 비첩석

본격적 연구과정 없는 속단...발전 저해

광개토왕릉비의 탁본에 관한 총체적 연구 시발

광개토왕릉비는 19C말 새삼스럽게 세상에 거듭 알려진 비로서 동북아시아에 현존하는 옛 석비중 가장 큰 비이다.

이 비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한·중·일 3국의 학계에서 1백여년간 부단히 연구하여 연구논저가 4백면에 달한다.

그러나 이 비에 관한 주도권은 초창기부터 20C 중반까지 줄곧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한의 박시형이 '광개토왕릉비'란 연구서를 펴내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86년 이형구 박노희가 '광개토왕릉비 신연구'를 펴내게 전부였다.

1백여년간의 연구성과가 축적된게 사실이지만 이 능비의 탁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총체적 조사활동을 펴다거나 종합분석

적 연구의 시도는 없었다. 따라서 임기중(국어국문학) 교수가 북경반문중 새로 발견한 광개토왕릉비 탁본과 석문 13종은 더욱 빛을 받고 있다.

조사한 탁본과 석문 13종의 의미 새로 발견된 탁본과 석문은 양적, 질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양적으로는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거론 대상으로는 15건 정도에 중시되어 온 회전원적이라 불리는 4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한 것중 10건이 앞의 15건속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회전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20C초의 석문 수를 하나 더 추가시킨다는 의미는 갖는다.

또한 질적으로는 탁본들의 탁본자, 소장처, 그리고 탁본을 들러싼 제반 기록, 능비 상황, 이 능비의 재발견 시기와 초기 탁본기법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살펴 새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서를 가진 것이다.

탁본의 소장처와 탁본의 계통이 갖는 의미 중국 금석학은 청말에 대성하며, 반조음은 그 시기 중국 금석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다. 따라서 탁본 1.2.3은 원래 반조음 소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탁본 4, 쌍구본 8은 조규유(의 소장본이 북경대학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 그가 펴 양친적이고 겸손하여 이 시대의 '학자'로는 비교적 정확하다. 이 책에서 이 분야의 새로운 학자 강요를 거론함으로써 주목을 받는다.

탁본 5는 유승간이 소장했던 것이 북경대학에 들어온 것으로 보아 유승간은 광개토왕릉비 석문을 실은 국민시대를 대표하는 금석학자를 알 수 있다.

이것으로 탁본과 석문의 소장처와 소장 경로의 중요성이 인식됨에도 그동안 조음했던 것은 이른바 신중국의 정치이데올로기의 가치관 때문이었다.

정점시황중 새로운 해석 광서초년부터 광서13년 전후까지 쌍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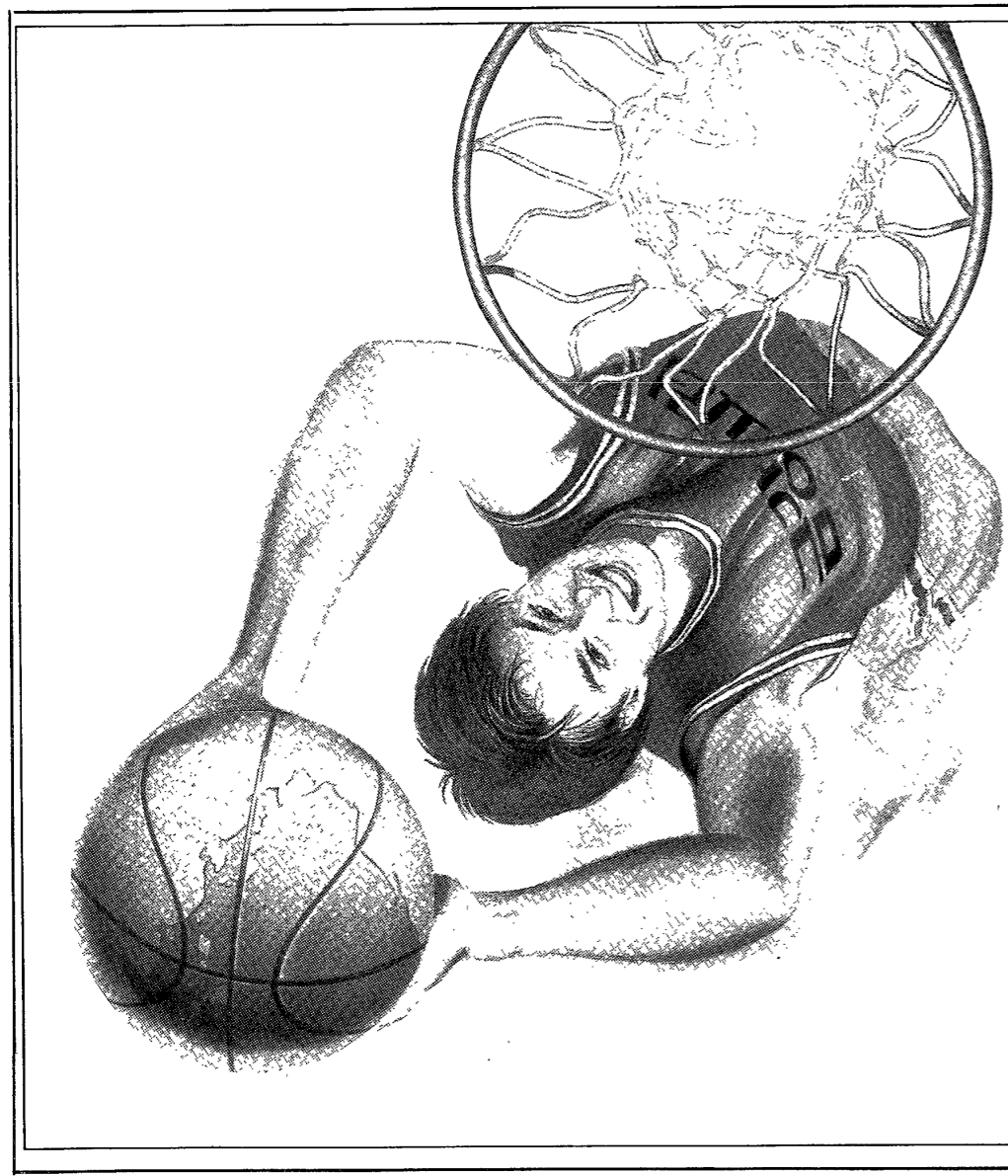
본이 먼저되고 그이후 정식 탁본이 유행되었다는 삼식박의 이론의 비논리성을 말끔히 씻어냈다.

한편 이대룡이 "재왕반" 했다는 기록은 정확한 것이며 반조음이 이대룡을 단독으로 파견하여 5월의 탁본을 해왔음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를 마친 임기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불완전 할수도 있다는 전제가 없는 한 대상을 옳바로 새롭게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밝혔다.

광개토왕릉비 재발견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많은 사람이 다 알려진 개념으로 연구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우리민족 모두가 '총향전'을 읽지 않고도 총향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조상의 탁본과 석문을 중국에서 계속 주도권을 쥐도록 내버려 뒀다는 이미 지난 것이다. (양수정 기자)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어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 금강 세계적 명성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벼야 할 무한한 코트 — 금강·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 건축 금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달 하나 천 강 에

‘ 명예 제도 ’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일년간 지내면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게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명깊게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 명예제도 ’ (honor system) 일 것이다.

강의실 앞쪽 벽에 학교 미크가 붙어 있는 포스터에 명예제도가 설명되어 있는데 맨 아랫줄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말하자면 명예를 지키는 것인데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지 말고 명예를 위해서 정직하라는 것이다. 만약 동료 학생에게 부정행위가 있으면 전화해서 고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험중에는 부정행위가 있으면 term paper를 작성할 때에도 남의 것을 copy하거나 부분 표절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대학에서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기때문에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나간다. 만약 어떤 교수가 같은 과목을 어제와 오늘 나누어서 치루어도 절대 그 출제된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절대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미국 대학생들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할때 보통 25%가 탈락을 한다. 한 학기에 시험은 보통 세차례 치루고 수시로 퀴즈라고 해서 간단한 테스트가 있는데 이 정규 시험과 퀴즈를 엄정하게 성적을 관리하기 때문에 학점 따기가 매우 어렵다. 4년제라고 해서 보통 5년에 졸업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강과목도 많이 할수도 없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자살소동도 일어나며 학기중 1주간씩 방학을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정작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인물들이기 때문에 대학생활 중 정직을 배우고 몸소 익혀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수업을 닦아야 하겠다.

최 상 범 자연대 조경학과 교수

갑오농민전쟁의 현장을 다녀와서

그날의 농민군 분노·함성 느낄 수 있어
고창읍성의 윤달 답성 풍속 현재까지 이어져



동학혁명묘의탑

‘ 녹두꽃 피는 그 마을에 가면/꽃이 울더라/꽃같이 붉은 그 울음을 울더라/꽃을 피우고 사는 그 가슴이/꽃만지 끝이 끝을 날리더라. ’

동학농민운동 1백주년을 맞아 흙의 울음, 농민군의 함성을 느끼기 위해 동학농민전쟁유적지 ‘ 녹두꽃 피는 그 마을 ’을 찾았다.

그동안 곳, 전시회, 학술세미나, 극공인등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으나 전직적 답사만큼 그 당시 농민들의 혁명기운을 가까이 느낄수 있는 것이 있을 까.

첫발걸이 당도한 곳은 황토현 전적지, 갑오농민전쟁이 치열한 접전이었음을 알게해준다. 농민군이 관사만큼 그 당시 농민들의 혁명기운을 가까이 느낄수 있는 것이 있을 까. 첫발걸이 당도한 곳은 황토현 전적지, 갑오농민전쟁이 치열한 접전이었음을 알게해준다. 농민군이 관사만큼 그 당시 농민들의 혁명기운을 가까이 느낄수 있는 것이 있을 까.

지금은 일부러 찾아오는 답사객이 아니면 가끔씩 들린을 바라보면



말목장터

서 소주에 제개를 풀어 한잔하는 어르신아 찾는 곳이 되어버린 황토재의 기념탑은 박정희정권의 혁명기념탑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기념관 역시 전두환대통령의 유시로 완공된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하고 정권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그러한 것은 두루마기 차림에 맨상투를 쓴 전봉준등상이나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농민군을 묘사한 부조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기념관안의 효수묘 전봉준의 사 진을 보면서 처형되던 그가 남긴 유시를 떠올린다. ‘ 배 만나서는 천지도 내내이더니/온 다하자 영웅도 할 수 없구나/백성사랑 올바른 길 무슨 허물이더나/나라 위한 붉은 명운들이 크게 확산되리라. ’

조경각의 만석보 물세 징수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봉기를 모의하고 녹두장군의 지도하에 모였던 곳이 말목장터이다. 말의 쉼터 시설을 갖춘 꽤 큰 장터였다고는 하나 장이 선 북적거림은 찾아볼수 없고 한적하기만 하다. 장터임을 알리기위해

올해 초 말목장이 세워졌다고 하니 감나무 한그루와 함께 장터 한귀퉁이를 쓸쓸하게 지키고 있다.

말목장터에서 장내리에 위치한 전봉준생생 옛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15분가량 가다가 끝없는 들판을 양양에 두고 한참을 걸어야 한다. 기차로 타고 창밖으로 바라보면 산이 있고, 논, 밭이 있고 드문드문 집이 있던 풍경과는 달리 정말 지방전봉준등상이나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농민군을 묘사한 부조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전봉준옛집은 세간짜리 초가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복원돼 있다. 근처에서 만난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초라한 집에서 거룩한 일을 하신거야”

‘동학혁명묘의탑’을 찾아가자면 입석리에서 도로를 따라 40분가량



걸어야 한다. ‘귀 불게 있어 가느냐’는 한 할머니의 말을 뒤로 한채 힘들게 걸어온 우리앞에는 답하나만 달랑 세워져 있었다. 당시 주산 마을에 모여 봉기를 모의할때 작성한 사발문명이 탁출면에 새겨져 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답타니를 보기 위해 힘들게 걸어왔다는 허무감이 아니었다. 자랑스런 역사가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한데서 느끼는 안타까움이라고 일행중의 누군가가 얘기한다.

남이있는 유적은 자랑할만한 민중의 것만 있는것 아니다. 지금은 가을운동회연습이 한창인 무장국민학교가 위치한 무장객사, 무장중원, 백성들을 수탈할 목적으로 지어진 이곳이 더 견제하게 보전받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고창읍성에서도 나타난다. 윤달에 들

을 머리에 이고 성곽을 3회돌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지금도 유물이 돌아오면 각지에서 물려온 사람들의 답성풍속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에게서 그 전설이 전해진 연유를 들을 수 있었다. 고

창읍성은 윤달에 완공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성이 완공된 후 단단히 다지게 하기위해 관에서 일부러 퍼뜨린 풍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뒤통이길 ‘머리에 깃 쓰고 관 쓴 농들은 손하나 안 댈것인데 돌 나르는 것만 해도 열마지기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가!’

짧은 일정으로 인해 만석보, 고 부항교를 미처 돌아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당시 농민군의 분노, 애절했던 함성등을 느낄 수 있었다.

‘1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이나 농민전쟁혹은 농민운동이 나등의 명칭 논란만큼이나 갑오농민운동은 우리역사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다. 현재의 올바른 평가가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마을은 기도기도 흙이 울더라/동학혁 봉준의 달 아래/영어리꽃 얼굴위에 쓰고/붉은 흙이 울더라.’ (김소영 기자)

문학단신

◇ ‘현여울’ 정기연주회

고전기타반 현여울이 ‘Raider's March’ 등 클래식음악의 연주를 통해 동양인의 클래식에 대한 재변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오는 15일 8시/중강당

◇ ‘94 노래판국 꽃다지 ‘모 여드세’

사무적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과 출세야망, 대기업들의 경영합리화 운동과 기업문화운동의 실상이 춤과 노래를 통해 5마당으로 구성,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오는 28일 29일-7시30분, 30일-4시, 7시30분/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연극 ‘트루 웨스트’

극단 한양 레퍼토리의 다섯번째 작품으로 무디고 지친 생활속에서 망각되고 부서진 인생, 꿈에 대해 리와 오스틴을 통해 객관적이면서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된다. ‘뿌리찾기’와 ‘자아확인’ ‘자기영역의 보호’의 문제를 실감하게 파헤쳐 현대인들에게 제시한다. 오는 10월9일까지/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문의는 747-1206

◇ 새책 ‘블랙의 신화’

87년 전래설 1기부터 6기까지 있었던 6년간의 청년학생들의 투쟁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 당시 주체(전대협 등 회화)가 직접 정리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과 전국적인 사례를 모았다라는 점에서 신뢰성과 생생함이 더하다. 전대협 동우회/우리출판사/값 5천 5백원

◇ 문화학교 세계영화사 3기 강좌 ‘새로운 영상의 모색-뉴 시네마에 대하여’

문화학교 서울에서는 각국의 영화운동의 새바람을 집결하여 그 이해의 장을 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찍하려는 의도로 세계영화사 3기 강좌를 개설한다. 주제는 ‘새로운 영상의 모색-뉴 시네마에 대하여’로 9월15일부터 12월4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강의와 영화감상이 있다. 접수는 9월15일까지 문의는 595-6002

◇ 민족 대서사시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자신의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살 그려
토지, 영원한 생명력과 창조성 담보하는 절대모성

격의 사람들의 정직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한 평자의 말대로, 우리의 근대사를 토지의 관점에서 예술로 승화시킨 일대 로망이며 한국 문학의 입문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 소설은 최초 가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울모와 제라, 김한과 증오, 살인과 보복 등과 같은 ‘원색적’인 한의 문체와 극치(國恥) 이후의 민족 운동이 두 축을 형성하면서 반세기여 걸친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지극히 제한된 지면에서 ‘토지’의 세계를 개괄적으로나마 다룬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일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서는 한의 문체와 관련하여 작중인물을 두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치수를 살해한 김경산과 귀녀, 그리고 최씨 가문의 재산을 가로챈 조준구 등은 개인적 한을 밖으로

◇ 민족 대서사시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자신의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살 그려
토지, 영원한 생명력과 창조성 담보하는 절대모성

분출시켜 타인과 자신을 파괴시킨 대표적 인물들이다. 그들은 신분차, 물질적 억압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을 저주하고 열화(熱火)와 같은 원한의 불씨를 키운다. 증오와 파괴의 광란적 심리에 사로잡힌 그들은 끝내 스스로 불을 당긴 영화의 희생자로 응모를 받게 되는데, 김두수와 임이네, 홍성숙과 백설자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이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준구와 김두수가 보여주는 아차(阿叉)와 같은 행위는 인간 본성의 한 극단을 직나라라하게 묘사한 것이리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치밀어 오르는 한의 불길을 내연(內燃)시키면서 사람다운 삶의 정수를 보여준 이음과 월선, 그리고 김한(구천이), 길상, 봉준, 윤보, 주강, 한복, 승관수, 두만네 등은 ‘토지’가 창조한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인

인물들이다. 이음과 월선의 비극적이지만 흰 무명같이 투명하고 순수한 사람이나, 배운 것 없지만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두만네의 당당함은 이 작품이 독자를 흡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아마도 작가가 작중인물의 성격화에 제일 고심한 담하면서 커다란 애정을 쏟아 부은 인물은 이음과 월선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들의 순결한 영혼과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굳건한 신념은 최치수와 김두수의 차고 약미적인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말하자면 이음이나 월선은 현재의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면서 사람으로써 한을 정화시킨 영혼같은 인물이며, 사대부 계층이 아니더라도 품위와 인간애를 갖춘 전형적인 한국인의 초상인 것이다. 최치수는 조준구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악착을 떨치지만 이음, 길상

등에게 감화되어 또다른 삶의 방향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존재이다. 또한 작가가 긍정적으로 성격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평민들이라는 점도 우리의 시선을 강하게 잡아 당긴다. 그것은 작가가 근본적으로 역사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육친애적인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토지’를 서양의 소설 이론의 잣대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결함이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간단없이 출현하여 사건을 요약 설명하거나 직접 판단하기까지 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토지’를 대작(大作)이게 하는 요인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작가는 현대 소설이 지향하는 객관적 거리 같은 초보적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대결하는 정직한 인간들의 삶을 생동감 있게 드러냄으로써 탄탄한 서사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 영 우 (문과대 국문과 감사)

WOOL의 느낌속에 남자는 깊어진다. X-GATE

남성 비즈니스 웨어의 전통 (주)삼풍의 신세대 표현, 엑스게이트.
가볍고 부드러운 WOOL로 착용감의 실용성과 ITALIAN STYLE의 세련된 신세대 감각을 동시에 느낄수 있습니다. 신세대 표현정장 X-GATE

(주)삼풍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1-15 캠퍼지 빌딩 (대) 596-0303

서울 경인/영동 X (대) 778-7645	부산/경남 522-4536	영남권 578-2236-1	대전/충청 778-4171	광주/전남 412-8069	롯데/대우 672-1791
대구/경북 511-8018	목포/전남 338-7574	목포/전남 338-7574	부산/경남 522-4536	대전/충청 778-4171	대전/충청 778-4171
대전/충청 551-1912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51-0008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51-4919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51-1800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51-96-5677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대전/충청 503-1035

Soft tailoring
ALL NEW WOOL
Lightweight Suits / sport coats

백상예술제전·단대학술제 개막

총학생회(부총학생회장=고정환·야간경제4)는 백상예술제전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행사일정은 △27일=개막제-마담극 우금치, 어울림 한마당 △28일=농과대 교수판대, 제천군 농민회 하루주점, 청년만해강좌 △29일=청년만해강좌2 △30일=폐막제-유금신, 바리케이트, 학내문제에 공연, 시상식, 마라톤등으로 마련돼 있다.

총학은 이에 앞서 백상예술제전 각종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는 기획안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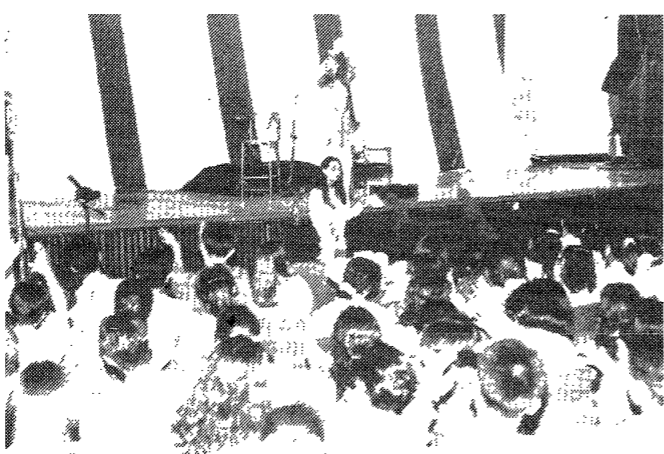
이에 고정환 부총학생 회장은 "행사의 내용을 강화해서 학원주체가 결합하는 모습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전에 참가할 대상은 오는 16일까지 동국대, 도서관, 학원관, 학생회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종류는 축구, 족구, 농구, 마라톤이다.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문과대' 지 '명진제'를 개최한다.

학식적인 부분을 최소화한 개·폐막식을 비롯해 학자투총회간담회, 명진거리만들기, 학생회실무미기, 체육대회등의 행사와 함께 통일·노동·여성문제를 다룬 종합지 '뿌리내리기'도 발간한다.

과별행사로는 국문과가 오는 29



◇총학생회의 백상예술제전과 각 단과대 학술제가 준비되는 가운데 총여학생회는 학술문화제 '통일과 구별을 꿈꾸는 너에게'개막식을 지난 13일 중강당에서 가졌다.

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연극, 동문 체육대회등의 행사를 가지고 '뽕골제'를 연다.

영문과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연극, 토론등을 포함한 '영상제'를 개최한다.

독문과에서 어제 (13일)부터 내일 (15일)까지 개최하는 학술제 '게르마니아'에서는 노래공연, 영화상영, 토론회, 동문의 밤등의 행사를 갖는다.

국민윤리과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학술문화제 '학림제'를 개최

하며, 고사, 길놀이, 독서토론회 연극, 1학년 연극, 동문의 밤등의 행사를 가진다.

법과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심포지엄과 행사모의제판 및 법대인의 밤 등으로 구성된 법학제를 연다.

행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국관(심포지엄)과 중강당(행사모의제판)등에서 있을 예정이다.

△28일= '환경권에 관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고찰'(사법학회) 및 '전체 법질서에서 바라본 통합적 행위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공법학회)이란 주제의 심포지엄 △29일= '한국 헌법에 있어서 권력분립제의 제문제'(민주법학회)란 주제의 심포지엄, '자녀교육을 빚자한 아동학대'(형사법학회)에 관련한 형사모의제판 △30일= 동문, 교수들과 만남의 시간인 '법대인의 밤'

△'모두 함께 벽을 부수고'란 대주제를 가진 사회과학도의 한마당 '응급학술문화제'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동국관주변에서 개최된다.

대중성과 정치의식성을 동반하여 사회현실을 직시한다는 기조를 내포하고 있어 그와 관련한 행사가 심도있게 펼쳐진다.

행사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꾸로 보는 날(26일)'= 야외영화제(동국관 앞, 사회현실을 왜곡하여 제작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마로 보는 날(27일)'= 개막식, 하루종일 영화제(4401), 야외영화제(동국관 앞,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영화상) △'파괴와 건설의 날(28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본질이란 주제의 공개토론회(4401, 한겨레신문 이봉순기자·본사-DUBS 교직원지원위원회관계자 참석예정) △'연대의 날(29일)'= 집단개입(줄타기, 줄넘기등), 노래자랑, 각 과 장기자랑 등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94학림축전을 개최한다.

학림축전은 과, 학회, 소모임의 1년을 총화하고 사법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달4일에는 축전 개막식을 가진다. 개막은 길놀이, 노래패공연등의 행사로 꾸며진다. 또 7일에는 만해광장에서 체육행사결승과 함께 시상식 및 학림가요제, 풍물공연등의 폐막식이 열린다.

교육학과는 5일 연극공연 및 체육대회, 6일에는 노래공연을 한다. 국어교육과는 5일에 학술워크숍, 6일에는 국교인 한마당, 8일에는 풍문선배와의 만남의 행사를 가진다.

역사교육과는 4일에서 8일까지 탐본전시회를 계산관에서 가지며 지리교육과는 4일에서 8일까지 학술사전을 연다.

수학교육과는 5일에서 7일까지 컴퓨터 경진대회, 7일에는 시화전, 학술발표회를 열어 가정교육과는 6일 학년대합체육대회, 4일에서 7일까지 아동학 발표회를 가진다.

'남산골 한마당'행사 △'남산골 한마당'행사에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자주적 총장선출투쟁까지 이어간다는 기조로 학술제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개최한다.

사건행사로 생활문화혁신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메뚜기살리기운동, 도시기증사업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학술제 기간에는 축구, 족구, 마라톤등의 체전을 치러낼 예정이다.

외국어교육원 위성안테나 설치

외국어교육원(원장=윤철원·영문학)은 폭넓은 외국어 방송청취를 위해 위성안테나 2대를 설치했다.

안테나 설치로 인해 NHK, Star TV등이 기존의 AFKN방송에 추가되어 3개방송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이 채널을 바꿀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나 기존의 1채널에서 10개(AFKN 1개, NHK 3개, Star TV 6개)채널로 늘어나 방송의 폭이 넓어졌다.

인철과 김교수 학생측에 서한전달

인철과 학생회(회장=이상환·9)가 김교수의 소속변경을 이유로 김교수의 강의 전면수강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김교수가 학생들의 결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학생회측에 전달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교수는 먼저 '학과와 학교에 누를 끼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교수의 서한에는 △3년(91. 7. 1~94. 6.30)동안 인도 네루대학교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연구한 내용을 강의하고 △연구 성과는 적절한 시기(최소한 1학기내)에 발표, 공개하며 △학과와 발전과 학과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회복 그리고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또 학생들이 강의를 먼저 듣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평가할 만한 기간(최소한 1학기내)이 지난후 강의 내용 및 연구실적의 문제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만학우의견개진운동 2기 한총련 평가등

'백만학우 의견개진운동 동국대 실천운동기간'이 어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로 정해져 교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

한총련, 각단위 학생회, 자주화선봉대의 공동주최로 실시되는 의견개진운동은 다음 5가지 내용을 짚문한다.

△본교 2학기 자주적 총장선출을 중심으로한 학자투에 대해, 중구에 슬체와 학복위에 대해 △한총련 2기평가와 나아가자할 방향 △공공안정국 평가, 통일, 교육문제에 관한 의식 △한총련과 학생회에 당부하는 말 △공공안정국규탄 성명서와 정당화 촉구·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성명서 채택을 위한 연대서명.

의견개진운동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5일까지 전국 각대학에서 실시하며 결과는 한총련 중앙위원회에서 한총련 혁신과제로 채택·실현한다.

특별열람증 발급

도서관(관장=김보환·경향행정학)은 휴학생, 졸업생등 학생증 비소지자들을 위해 특별열람증을 발급한다.

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일은 매주 금요일이며 신청시 휴학생, 졸업생, 시간강사, 대학원 수료생등은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 이 열람증은 도서관 출입만 할 수 있는 것과 도서 대출도 할 수 있는 것의 두종류로 나뉘어 있다. 김중철 열람계장은 "원래는 기간을 정해놓고 발급을 해야 하지만

김교수의 서한에는 △3년(91. 7. 1~94. 6.30)동안 인도 네루대학교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연구한 내용을 강의하고 △연구 성과는 적절한 시기(최소한 1학기내)에 발표, 공개하며 △학과와 발전과 학과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회복 그리고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또 학생들이 강의를 먼저 듣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한다면 만약 평가할 만한 기간(최소한 1학기내)이 지난후 강의 내용 및 연구실적의 문제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때에 학생회장 이상환군은 "김교수가 한발 물러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학년토론회와 총회를 통해 이 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사라지는 않는다"고 말해 결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학/전/무/대

극우 별치산

O...극장폭파의 위험까지 받았던 영화 '태백산맥'이 공문위 심의를 무수정으로 통과해 눈길.

'태백산맥'은 그동안 이념적 편향성문제로 인해 극우파단체로 부터 잦은 협박을 당했으나 점차 공문위에서는 아무런 이념적 문제가 없다고.

이를 본 한 학우 왈 "도처에 전경이 깔린 문민정부시대에 극장폭파를 한다는 극우파 어르신들은 별치산을 능가하는 유격진을 하시려나?"

서해안 우리비대?

O...동해가 졸지에 일본해로 바뀌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알아본즉 동·서해 오염방지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대표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외부부는 뒤늦게 일본해표현을 동해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에 본 회전문대자 "동해가 일본해면 서해는 중국해, 태평양은 미국해인가?"

비공인박사

O...최근 교육계 명달이(?)는 '명달이 시리즈'에 이어 '영터리 박사'조사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다름아니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홍기훈' 의원은 학원인정이 되지 않는 이른바 '비공인 박사'가 전국 41개 대학 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전문성과 실력보다는 외국의 학위를 더 중요시하는 풍토의 사람스런(?) 자식이 아닐런지..."

돈의 위력

O...세계는 넓고 길곳은 많다. 고로 복한도 간다."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김쪽 같이 복한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진 후 김우중이 그 위력에 경악하고 있다.

다름아니라 복한까지 투자의 발판을 넓힌다는 미명아래 6월 중순과 7월초 정부의 공식적인 허락으로 당당히 다녀왔으나 뚜렷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우측 모두 부인하고 있어 무슨 공중인지 알수 없는데.

혹 누군가 뒤에선 이런말이 "빨갱이면 어때? 경제를 살리자는데. 내가 더 키워줄게"

증과증원·과명개칭 논란 교수영입·공간문제등 산적

95학년도 본교 증과 증원 및 학과 명칭 개편과 관련해 학과 명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학과 명칭 개편은 '전산통계학과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산통계학과 학과장 염준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산통계학과가 통계학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교과과정까지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며 "교육부의 지침과 함께 현재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명칭변화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90년도 야간강좌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와 중간통합을 거론하며 기존의 교과과정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교수는 전통과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전산통계 계열로 전산학과와 전산통계학과를 묶어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여기에 맞추어 신인교수 확보 등에 힘쓰고 학생들에게 전산과 통계 두 영역 모두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안은 총장결재를 받고 어제 (13일) 교육부로 들어가 최

침 개편은 '전산통계학과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산통계학과 학과장 염준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산통계학과가 통계학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교과과정까지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며 "교육부의 지침과 함께 현재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명칭변화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90년도 야간강좌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와 중간통합을 거론하며 기존의 교과과정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교수는 전통과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전산통계 계열로 전산학과와 전산통계학과를 묶어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여기에 맞추어 신인교수 확보 등에 힘쓰고 학생들에게 전산과 통계 두 영역 모두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안은 총장결재를 받고 어제 (13일) 교육부로 들어가 최

침 개편은 '전산통계학과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산통계학과 학과장 염준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산통계학과가 통계학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교과과정까지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며 "교육부의 지침과 함께 현재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명칭변화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90년도 야간강좌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와 중간통합을 거론하며 기존의 교과과정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교수는 전통과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전산통계 계열로 전산학과와 전산통계학과를 묶어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여기에 맞추어 신인교수 확보 등에 힘쓰고 학생들에게 전산과 통계 두 영역 모두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안은 총장결재를 받고 어제 (13일) 교육부로 들어가 최

침 개편은 '전산통계학과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산통계학과 학과장 염준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전산통계학과가 통계학과로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교과과정까지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며 "교육부의 지침과 함께 현재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학과 통합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명칭변화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90년도 야간강좌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와 중간통합을 거론하며 기존의 교과과정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교수는 전통과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 "전산통계 계열로 전산학과와 전산통계학과를 묶어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여기에 맞추어 신인교수 확보 등에 힘쓰고 학생들에게 전산과 통계 두 영역 모두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안은 총장결재를 받고 어제 (13일) 교육부로 들어가 최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 10대 유리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판유리, 관유리, 유리섬유, 유리정성유, 결정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브라운관유리, 강질유리, 실린더

좋은 사람 만나기 — 유홍준 교수 국도박물관 길눈이를 자처하는 한국미술사 전도사

대한인의 포럼 '뿌리내림'에서 주최하는 '좋은 사람 만나기'가 그 4번째 시간으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영남대·미술사)교수를 초청해 '미학자와 신세대의 만남'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0일 이화여대 가정관에서 오후4시부터 3시간에 걸쳐 열린 이번 포럼은 유교수의 슬라이드강의, 사회자와의 대담, 청중들의 질의 응답 등 3부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문화유산을 보는 눈
슬라이드 강연은 장엄한 동해의 해돋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항상 슬라이드 강연을 시작할때 처음 보는 사진인데, 여러분에게 경건함을 느끼게 한다거나 국인의례를 하지는 것...이 아니고 대양의 원을 보면 슬라이드 포커스를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계단까지 들어선 청중들이 '와'와 '오'를 터뜨리며 이미 유교수의 입심종은 제법과 경쾌한 목소리의 강연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치면서 교과서를 통해 한번쯤은 접해본 문화재물이지만 '그의 눈빛이 닿으면 피곤감이 문화의 총체로 활짝 꽃피운다'는 시인 고은의 표현처럼 우리 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돌방에 주술을 걸어 숨쉬게 하는 마법사를 연상케한다.

사회자와의 대담
유교수는 올 초에 이미 12월까지의 강연일정이 잡혔을 정도로 요즘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남대 강의와 학전 소극장에서 강연을 빼더라도 연일 계속되는 강연 일정과 답사로 그의 일주일엔 빈틈없이 짜여 있다.

그의 말마따나 이제 무슨 번고인지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종교하는 마음으로, 한국미술사 학자가 아닌 한국 미술사 전도사의 마음으로' 강연을 다지고 있다고 한다.

무엇이 이토록 그를 바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공금증만들이나 나름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거나 '사회적 이슈가 없어짐에 따른 사람들의 관심의 변화' 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해석들에 대해 유교수는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말한다. 물론 시운을 잘했다고 하면 여간 편리한 해석이 아니지만 적당한 때를 맞추기 위해 고심한 작가의 노력은 배제된 것이 아니라고.

국도 박물관의 길눈이를 자처하면 전국도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버린 그의 놀랄만한 식견은 삼시간 우리 사회에 유적답사의 붐을 형성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단순한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우리의 문화는 독창적이고 우수하다'를 가르치는 것만뿐이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그는 '즐거워 뿌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까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오랜 세월의 흥분지에 묻혀 있던 선조들의 삶과 숨결이 천년의 시공을 뚫고 한순간 내연촌에 맑은 물결기로 울려 들어 온다고 말했고, 균형과 상승감을 갖는 감은사 탑 이야기에 자신을 뒤돌아 볼 기회를 가졌다며 감은사 탑 사진을 항상 간직하고 자신의 단칸 북방에 '감은암'이란 이름을 지을 정도로 유교수의 열성팬



중에 한명이다.
청중들과의 대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 곳에서 '이제 쉬고싶다'고 밝혔던 유교수의 앞으로 계획,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권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였다.
"지금까지 강연해왔던 '문화유산'을 보는 눈'의 내용을 겨울 방학때까지 책으로 엮어 출판할 예정입니다."

또 작가의 삶과 철학이 없으면 작품은 있을 수 없다며 화가들의 작품을 쓰고 있는데-여기서 유교수는 아직까지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단원 김홍도전이나 정선전을 해본 적이 없고 김홍도에 대해 말하려고도 단 두마디이상 하기 힘든 현실을 개탄했다-7월까지 정리가 끝났고 10월을 채우면 역시 출간되나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권은 그 이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구상을 끝낼 수 있었던 것도 나름대로 큰소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제목은 '회상과 회한의 백제'는 '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을 시작해 부여, 익산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백제문화의 길을 되짚어 가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백제의 역사가 유교수의 눈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허동혁 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이태리 네오 리얼리즘의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 그의 영화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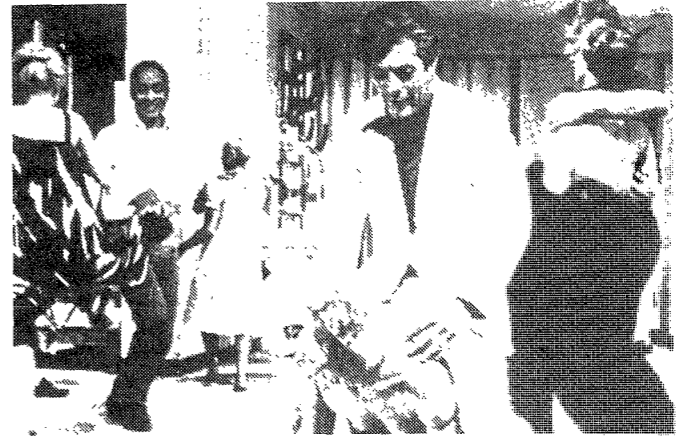
이태리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는 이태리 영화의 대가들인 로베르토 로셀리니, 피에트로 제르미, 알베르토 라부아다 등의 밑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하면서 영화계에 입문했다. 원래 그는 신문사에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영화의 매력에 빠지면서 2차 대전 이후 이태리의 새로운 사실주의 운동인 '네오 리얼리즘(Neo Realism)'의 미학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펠리니의 첫 영화 '백인주장'(1952)은 가벼운 풍자 코미디로서 영화배우를 연모하는 한 순진한 여인의 웃지 못할 섹시한탈춤을 회화적으로 그렸다. 두번째 작품 '부랑자들'(1953)에선 본격적으로 펠리니 감독의 특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물과 환경에 대한 관찰이며, 자서전적인 창작방식이다.

펠리니의 명성을 널리 알린 작품은 그이후에 연출한 '길'(1954)이다. 이 영화는 당시 유행하던 이태리 네오 리얼리즘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펠소미리라는 한 소녀가 마을에 찾아온 유랑극단을 따라나서고 길을 따라 여행을 가는 도중 남자들에게 버림받아 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이 섹시한탈춤 이야기 이전에는 전후 이태리 사회의 가난과 부도덕, 배신, 또한 펠리니 특유의 주제인 예술에의 끝없는 동경 등의 주제가 이면에 깔려있다.
"펠소미리의 테마"로 알려진 이 영화 주제는 오히려 펠리니의 당시에 이 영화는 좌파 평론가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영화도 사실주의적으로 현실을 묘사하면서도, 인생의 알레고리가 지배하고 있어 네오리얼리즘이 추구하는 대중의 현실 각성이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때문이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국제적인 명성을 갖게 되었고, 그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

펠리니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인 사실주의와 상징주의의 결합은 이후 작품에 계속 이어진다.
"사기꾼"(1955)에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모순된 시가꾼들의 세계를, '카비리아의 밤'(1956)에서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처녀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교차시킨다.
4년여의 침묵 끝에 그는 '달콤한 생활'(1960)을 내놓는데, 이 영화는 한 신문기자의 체험을 통해 산업



◇한 신문기자의 눈을 통해 본 현실과 환상을 그린 '달콤한 생활'

사회에서 종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해 들어가는 모습을 현실과 환상을 섞어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1963년 '8월'을 통해 그는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주인공은 영화감독으로서, 새로운 작품을 하기위해 갈 등하는 예술가의 고민을 잘 그리고 있다. 이 영화의 자서전적 스타일은 이후 다른 작가들의 자전적 예술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펠리니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후 그는 '영혼의 줄리엣'(1965), '사화'(69), '광대'(70), '펠리니의 로마'(72), '아미르코르드'(74), '그리고 배보 항해한다'(83), 가장 최근작인 '인터뷰'(87)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어린시절, 사랑, 예술에 대한 추구, 감동, 등의 주제를 서로다른 형태로 변주하고 있다. 펠리니 영화에서는 다른 네오 리얼리즘 계열 감독에게서 발견되는 강한 역사적이나 정

지성을 엿보기 어렵다. 그러한 요소들은 그의 사적인 이야기와 꿈, 무의식, 환상적인 장면처리 등에 가리워 표현상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예술세계에 들어가면, 인생과 예술에 대한 모험의식을 통해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하게 받게 된다. 누군가 다음과 같이 펠리니를 평가한 적이 있다. '이태리에는 두 부류의 영화예술 사조가 있다. 하나는 스펀터클과 오페라적인 응징함을 추구하는 서사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깊은 예상을 표명하는 인간주의적 전통이다. 펠리니는 이들 두 전통을 하나로 합친 그런 사람이다.'

펠리니 사후, 새삼스레 펠리니의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그런 점들 때문일 것이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교수·영화평론가)

◇신인작가공모 당선-조용구 동문을 만나

"삶과 시창작에 게을리하지 않을 터"



기상청이 생긴 이후 처음이라던 지난 여름날의 무더위가 한물 객인 듯 밤과 아침사이 부는 바람이 시원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경주광역시 동문동에는 그러한 바람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내렸다.

"저는 뜻한 뒤속에서 얻은 수확이었다는 심사평처럼 '한국문학' 제 31회 신인작가공모 시부문에서 조용구(국문 94살)동문의 등단은 동문동인의 기쁨을 선사하는 소식이였다."

"저를 당선소식을 들었을때에는 당황스러웠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라고 그 당시의 심정을 밝히는 조용구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삶을

말해주듯 피곤함이 물러 오고 있었다.

생각과 감정들은 글이라는 도구로 표현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는 조용구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체험과 우리 주변삶의 모습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싶다"고 자신의 문예에 대한 소망을 조심스럽게 건넨다.

/판자집이나 슬레이트집 속에서 울러나오는/우렁찬이같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제언이 길으면 길수록 더욱 선명하게/
폐공촌 삶의 깊이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구월리에서'등에는 조용구의 소망이 형상화되고 있는 듯 하다.

"신인생 시절 가입한 '동국문화회'와 '시선'동인회에서 만난 선배들로부터 지적호기심과 시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상대적인 열등감등을 많이 느꼈습니다."고 시창작에 몰입하게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조용구

는 시창작에 힘쓰고 있는 후배들에게 "문학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문학에 대한 논쟁과 자신의 시에 대한 치열함이 자연스러웠던 예전의 모습들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또한 조용구는 "80년대 말의 시대적 상황은 '시의 시대'이기를 강요했지만 현재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누가 시인이기보다 독자모두가 시인이자 비평가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우선 문예이론을 많이 터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내에 대한 반성과 시대의 반성으로, 내 삶과 시창작에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조용구의 얼굴에는 어느덧 삶의 깊이가 자랑스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김태성 기자)

메아리

일본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북미 관계 개선 등 에서 나타났던 김영삼 정부의 외교능력이 다시 한번 세상에 널리 알려질만한 사건이 발생해 반쪽을 사고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김영삼 정부는 동해의 공식명칭을 일본해로 바꾸어 버렸다. 비록 여론에 밀려 원상복귀 되기는 했지만 실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지난 9일 각 일간지에 보도된 뒤 이에대한 비판의 소리가 곳곳에서 빙발쳤다. 외무부측은 지난 8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회의에서 실천계획을 채택할 예정인데 대상해역 명칭을 일본해와 황해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동해명칭에 관한 우리나라

와 일본간의 논란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고 한다. 그 담당자는 "별다른 대안없이 동해명칭을 놓고 회의가 지연되는등 이 문제가 회의의 본질을 희석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한차례만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타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할 공식문서에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외무부는 일단 발령부터 하기

시작했다. 외무부는 "보전실천계획 관련문서에 한국만을 제외하고 일본해라는 표기를 모두 삭제토록 했다"면서 마치 일본해라는 표기를 한국에만 하기로 한 것 자체를 당연한것이 아닌 마치 커다란 외교적인 성과인양 설명했다. 외무부는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지난 9일 외무부는 긴급대회의를 열고 이번회의에서 합의해 작성된 문서의 일본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일단 일본해 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에게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것이다. 회의가 지연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민족의 중대사항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려한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외교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編)



최경민 (53)

'94 청년동악! 백상예술체전!!

일시 : 9월27일~30일

목errick의 동악은 서서히 가을의 향기로 접어들습니다. 백상의 지혜와 기상이 살아있는 가을 대축전! 백상예술체전 이제 여러분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체전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종목 : 축구, 족구, 농구, 마라톤

접수장소 : 동국관, 도서관, 학림관, 학생회관 앞

참가대상 : 각단위 과 학생회, 동아리, 동문회, 향우회 등등



제26대 총학생회